



피랍사태 관련 자료집 목차

## 한국교회와 선교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

- 01 손인웅 : 머릿글
- 02 손봉호 : 추천사
- 03 강승삼 : 추천사
- 04 김희권 :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 05 조성돈 : 샘물교회 해외봉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 관한 질문들
- 06 백종국 :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의 국제정치
- 07 이범성 : 지금은 21인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 08 이성구 :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봉사단과 하나님의 역사
- 09 한철호 : 한국교회와 선교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
- 10 양세진 : NGO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이번 사건
- 11 30개의 기도제목
- 12 피랍사태 관련 자료
  - 자료 1) 피랍사태 ‘속수무책’…국민들 집단 ‘무력감’ (서울=연합뉴스)
  - 자료 2) “탈레반의 종교적 신념이 협상 걸림돌”  
- 아프간 무자헤딘 출신 선교사, “한국교회, 지혜로운 선교 방식 배워야”  
(박지호, 뉴스앤조이)
  - 자료 3)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는 시대적 표징 (문창극, 빛고소금)
  - 자료 4)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이훈범논설위원, 중앙일보)
  - 자료 5) 인터넷 떠도는 피랍자 관련 루머 모두 ‘사실무근’  
- 외교부 “비행기 취소는 금시초문… 전세기 보낸적 없다”  
(전경웅기자, 프리존뉴스)
  - 자료 6)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고난의 십자가’ (정용인기자, 뉴스메이크)

## 머릿글

손인웅 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이 머릿글을 쓰는 시기는 샘물교회의 단기봉사단이 피랍된지 40여일이 지난 후이다. 어제 뉴스에는 우리 정부대표단과 탈레반이 현재 피랍되어 있는 19명의 인질들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나왔다. 지난 40여 일 동안 샘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마음을 졸이고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한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 그간 우리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수많은 고개를 넘어왔는지 모른다. 고배형규 목사가 피살되었을 때, 고 심성민 형제가 그렇게 인생을 달리 하였을 때 당했던 충격과 슬픔은 다시 파도가 되어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 석방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접할 때나 김정자, 김지나 자매가 풀려났을 때는 그 가능성에 흥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여러 사람들을 접할 때는 슬픔과 분노도 있었다.

이제 돌이켜 보면 그 40여 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안에서 겪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박은조 목사는 ‘우리 식구가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로 그 사정을 대변해 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 사회와 교회에 준 충격만큼이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한국사회 속에 교회의 자리와 역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재정립, 지역교회와 선교단체나 NGO와의 역할 등에 대해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도 좀 더 성숙되어지고 세계 안에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번 자료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번 사건을 이해하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주제들과 생각들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되기를 바라고 더불어 한국교회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제안하고 있는가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자료집에는 교계의 다양한 입장들이 취합되었다. 그 선 자리가 다른 분들의 견해를 통일하기 보다는 그 다양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했다. 그래서 독자들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한다. 부디 이 자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사회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 추천사

손봉호(서울대 명예교수, 기윤실 자문위원장)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에 관한 자료집이 이렇게 빨리 출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므로 선례를 찾기가 힘들고, 사건 자체가 워낙 독특한 것이어서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다. 사건 자체 뿐 아니라 그것이 한국사회와 교회에 미칠 후유증도 엄청날 것이고, 특히 한국교회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기독교에 신사참배 문제보다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문제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충분히 심사숙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다. 어느 정도 정돈되고 일치된 한국교회의 반응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계해서 일반인들보다 좀 더 많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제시하는 의견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그 의견들을 참고해서 좀 더 올바르게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책에 수록된 내용들이 한국교회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제시란 보장도 없다. 다만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고민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할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위기는 기회”라고 자위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약점이 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렸던 문제이고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이므로 우리는 결코 이 사건을 피상적으로 적당히 판단하고 행동할 수 없다. 선교와 구제에 대한 한국기독교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하고, 나아가서 일반 사회에 비취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희생하지 않고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크게 지장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우리들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추천사

강승삼 목사 (KWMA 사무총장)

‘교회를 새롭게 민족에게 희망을’이라는 표어로 2007년에 접어들면서 모든 한국교회는 평양대부흥100주년에 초점을 맞추어 갱신과 부흥을 기대하였다. 희망찬 내일을 내다보는 이문턱에서 일순간 아프칸 봉사단 피랍사건이 발생하여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되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반기독교 정서가 엄청난 위력으로 한국교회에 다가와 어찌면 선교120년 만에 또 한 번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성도는 성도대로 단기해외봉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처음으로 겪는 피랍과 2명의 한국인 피살로 인한 충격을 갖게 되었고, 반기독교인은 그들 나름대로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탈레반에 의해 이미 고인이 된 두 분의 희생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을 섬기고 아가페 사랑을 베푸는 그들의 섬김과 봉사의 정신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긴장감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견디어 왔던 21명의 봉사단원들도 값비싼 교훈을 받았을 것이다. 이로 인해 샘물교회는 물론 한국 교계에도 큰 교훈이 되었다. 이제는 국제적인 단기봉사활동이 더 이상 개 교회나 개인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때에 이번 자료집의 출판은 적기라고 생각한다. 이 자료집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바르게 전달되고, 기독교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올바른 대처가 이루어져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는 주요 재로서 사명을 다 할 것이라 믿고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이번 피랍사태를 대하면서 계속 목상이 되는 말씀이다.

부디 이미 고인이 되신 두 분의 희생의 피와 21명의 피랍자들의 고난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차제에 우리는 해외 봉사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계봉사연합기구> 같은 범 교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김희권 목사 (송실대학교 기독교학과)



## 빌립보서 1:12-26

12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 이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6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하느니라 18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19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대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 7월 19일에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의료선교 활동 중에 탈레반 무장세력들에 의하여 납치되었다. 7월 25일에 배형규 목사, 7월 31일에 심성민 형제가 탈레반 무장세력들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그리고 1주일 전에 김정자 김지나 자매가 풀려났고 어젯밤 피랍된 지 41일만에 우리 정부와 탈레반은 나머지 인질 19명 전원석방에 합의하였다. 41일간 우리 국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가니스탄 산악지역에 억류된 젊은 형제자매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애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번 피랍과정에서 살해당한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외에 풀려난 형제자매들의 생환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 하지만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의 죽음 안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순교적 삶에 대한 부르심을 듣는다. 곧 밝혀지겠지만 두 분의 희생이 나머지 형제자매들의 무사석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믿는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슬람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죽음으로써 거짓 없는 사랑을 증거해야 한다는 진리를 교훈으로 남겼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분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 단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앞에서는 생명을 내놓고 해야 할 선교사명이 있음을 일깨운 각성의 타종을 울리고 스스로 죽은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이슬람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더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야 할 사명에 부름받은 것이다.

이슬람과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잠깐만 개관해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의료봉사를 떠난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럽고 놀라운 모험인가를 금세 알게 된다. 그들은 위험을 모르고 떠난 것이 아니라 알고 떠났다. 그들은 일부러 휴가를 내어서 자비를 들여 전쟁과 내전으로 망가져버린 생지옥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러 간 것이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국가적인 위기와 곤경을 초래하느냐고 소리치는 반기독교적 혹은 기독교인들의 악성 댓글이나 비난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희생의 원동력이 그들을 위험한 곳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이 단지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천 년 이상 누적된 역사적 기억의 총화이며 서구 기독교의 침략을 가장 맨먼저 온몸으로 감당하던 이슬람 문명권의 관문임을 그리고 그들이 중요와 애국적인 열정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모르고 갔을 수는 있

다. 하지만 그들이 위험한 곳으로 단기의료봉사를 떠났다는 것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일들은 항상 위험하고 불편한 일들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의 몫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은 아픈 기억, 강자(1980년대는 소련이 2000년대는 미국)의 힘에 의한 국토 유린, 정부 유린, 인권 유린, 생존권 유린이라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무자비의 희생자다. 우리가 23명이 인질로 잡혔다고 24시간 전국민적 관심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깨어 있을 때, 피랍을 주도한 탈레반은 전세계인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전 국토와 국민이 침략군의 인질로 잡혀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과연 우리 형제자매들을 납치한 탈레반들은 도덕적 파렴치들이나 강도떼들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 등 여러 제국들에 의하여 국민 전체가 인질로 잡혀 있었으나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던 잊혀진 그래서 몰래 살해당한 인질들의 아들 딸이다.

이슬람 문명권은 1500년간 누적된 서구 기독교의 침략 역사와 특히 19-20세기 서구 식민지의 이슬람 문명 침략과 지배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전쟁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극단적인 혐오감과 적대감을 품어오고 있다. 미국이 오사마 빈 라덴을 잡겠다고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여 당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고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탈레반 정부를 전복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산악지역으로 추방하여 탈레반 무장반군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이슬람 나라들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를 들먹인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은 미국의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죽음의 천사로 본다. 탈레반의 눈에는 기독교는 미국의 종교요, 성서는 미국의 침략 이데올로기를 재가하는 성경이요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하고 이슬람을 박멸하라고 명령하는 경전이다. 탈레반들에게 한국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독교적 서구 세력의 침략과 야만의 역사의 연속상에서 파악되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게 종교 또는 기독교는 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다. 어떤 야만적 폭력이나 침략전쟁도 정당화할 수 있는 무서운 단어, 테러를 가하는 어휘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인의 눈에는 이슬람 근본주의자 혹은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탈레반은 종교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야만의 역사가 낳은 희생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젊은 단기선교 참가자들이 거리낌 없이 들어가 활동하던 아프가니스탄은 스스로 의료봉사나 선교활동을 받아들이기로 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미국이 강요하여 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의 혈맹으로 아프가니스탄에 300명 미만의 의료부대 및 공병 토건부대를 파견하였다. 탈레반에는 한국의 의료부대나 공병 토건부대나 미국의 토마 호크 미사일 부대나 똑같이 야만적인 외국군대로 보였을 것이다. 미국에 대한 증오심은 모든 외국군대 그리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성경을 들고 침입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증오와 반감으로 쉽게 전이되었을 것이다. 우리 한국의 23명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증오와 한이 서리치는 지도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무리 그들 자신의 순수하고 선량한 동기로 시작한 의료봉사활동이지만 이미 그 자체를 야만적 침략행위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는 탈레반들의 역사적 상처와 한, 적대심의 파도 위에서 휘둘리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인질들은 한과 증오의 역사의 희생물이다. 그들은 도덕적 파렴치가 아니라 역사의 질곡으로 망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세계 최강 괴수들과 싸우다가 괴수가 되어버린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인질로 삼고 자신들의 아이들 가족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죽어간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소리쳤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젊은 23명의 인질들은 아프가니스탄의 비극과 불행, 한과 증오로 가득찬 그들의 역사적 상처에 한층 더 깊은 공감적 이해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우리 23명의 형제자매들이 이런 복잡한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한과 상처를 철두철미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도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시민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도한 그들의 활동을 선교제국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쓰나미를 당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한 우리 나라의 엔지오 정도의 활동을 벌이려고



간 것이다. 그들은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에 와서 의료선교활동을 벌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호의,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심어주려는 의료선교사들처럼 봉사활동의 초기단계에 참여한 것이다. 기독교에 대한 우의와 호의적 감정을 조성하고 기회가 되면 사영리정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그들의 행위가 공격적 선교도 아니요 제국주의적 선교도 아니다. 그들은 의료봉사를 통해 그들의 구체적 필요를 돕는 데 주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동남아로 해외로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젊은이들과는 달리 위험한 지역에 위험상황을 예고받고도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위험은 감지되었고 나름대로 비장한 결단을 했다. 그 결과 희생, 고난, 역경이 닦친 것이다. 샘물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배형규 목사와 심성민 형제, 그리고 우리 21명의 생환 형제자매들의 희생과 고난을 기리며 이슬람 사랑, 이슬람 이해, 이슬람과의 화해와 평화 창조에 앞장서게 될 때 이번 피랍 사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고 배형규 목사와 고 심성민 형제의 길도 구원의 길이며 생환한 21명의 형제자매들의 길도 구원의 길이다. 위에서 읽은 개역(개정) 성경을 뜻을 좀 더 쉬운 우리말로 사역해 본다.

12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상황이 복음 전파를 촉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13 온 시위대(경호병 부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실상은 단지 물리적인 감옥 안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박된 자인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14 그 결과 대다수의 형제들이 주안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감옥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대담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 실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과 경쟁심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의로 그렇게 합니다. 16 이 후자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옹호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세워진 것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17 전자의 사람들은 경쟁심과 나의 속박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순전치 못한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18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선적인 동기에서건 순전한 동기에서건 어떤 경우에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19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들(간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이런 상황이 나에게 석방(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 나는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거나) 언제나처럼 심지어 지금도 내가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기대와 소망에 의하여) 나는 석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1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22 이 육체를 가진 채 사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노동의 수고를 맺는 도구자로 몸을 유지하는 셈이 되겠지요.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두 선택 사이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것이 내게 훨씬 더 좋습니다. 24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훨씬 더 필요한 일입니다. 25 하지만 나는 내가 육신을 벗고 계속 더 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영적 진보와 신앙 안에서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26 즉 내가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음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의 기쁨이 다시 한번 가득 넘쳐 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의 선교사역은 필설로 형용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참 사도가 아니라는 혐의어린 비난에 시달렸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오히려 온 시위대(군대)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12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인질로 갇혀 있는 상황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선교의 위험성과 맺가는 무엇인가를 숙고하게 만들어주었다. 이슬람 형제자매들을 복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 넘어야 할 장애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슬람 근

본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증오와 한뼨한 적대심의 실체를 경험하였다. 이런 경험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41일간 내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미래를 생각하게 되었다.

13절이 참 중요하다. 바울을 투옥한 사람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의 부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사슬, 더 촘촘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온 시위대(경호병 부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실상은 단지 물리적인 감옥 안에 속박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박된 자인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확신이 로마제국의 쇠창살이 주는 속박보다 더 강력하게 바울을 속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바울의 투옥을 보고 의기소침했던 대다수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감옥생활을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전보다도 훨씬 더 대담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14절).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감옥생활을 영원히 즐길 천국생활로 간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석방을 간절히 바랐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석방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역자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공급하심을 통하여 자신이 석방(구원)될 것을 확신하였다. 20절에도 이 기대와 확신은 계속된다. “나는 결코 낭패를 당하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거나) 언제나처럼 심지어 지금도 내가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기대와 소망에 의하여) 나는 석방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한 가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추가된 석방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석방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감옥으로부터 몸이 석방되는 것이며 둘째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이 석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몸으로부터 영이 석방되는 것도 바울이 기대한 구원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죽음을 통해 육체의 쇠창살을 지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석방이 더욱 궁극적인 구원이요 바울이 내심 더 바라는 구원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감옥으로부터 몸이 석방되어 동역자들과 함께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동역자들과 교우들에게 더욱 더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위대한 바울도 자신의 앞날이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형제자매들의 석방가능성과 그것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이렇게 생각해 왔다. 22절에서 바울은 섬기는 종의 수고를 다하기 위하여 몸이 석방되기를 열망한다(또한 24절). “이 육체를 가진 채 사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노동의 수고를 맺는 도구자로 몸을 유지하는 셈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23절 후반절-24절에서 그는 또 다시 마음 저울 눈금이 몸으로부터 석방되는 시나리오로 기울어진다. “나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23 나는 이 두 선택 사이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육신을 벗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것이 내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마음의 요동에도 불구하고 24-26절은 살아 나가서 자신의 석방을 기다리는 동역자들에게 돌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목양사역, 선교사역을 필하기를 바란다.

요약하면, 바울은 자신이 몸이 석방되어 생활하여 동역자들에게 돌아가기를 열망하지만 또한 자신의 영이 몸으로부터 석방되어(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날을 열망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후자를 갈망하지만 현실상의 필요 때문에 그는 전자를 결단한다. 그의 핵심 메시지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자신의 최고 가치라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형제자매들은 두 가지 의미의 석방을 다 경험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고 심성민 형제와 고 배형규 목사에게는 전자의 석방, 몸으로부터 영이 석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구원을 허락하였다. 이들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한 삶에는 거룩하고 복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진리, 그러나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중심 증언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죽음이 그들의 구원이요 석방이었다. 복음성가의 노랫말처럼 죄많은 이 세상, 죄와 죽음과 방황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석방되어 요단강 넘어 수고와 슬픔도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원을 선사받았다. 하나님께서 음습한 동굴에서 황량한 하늘을 등진 채 죽임을 당한 배 목사와 성민 형제의 영혼을 포용해주시며 지상에 남겨진 가

죽들과 때 이른 이별을 겪은 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다. 남은 가족들을 순교자의 가족으로 돌봐주실 것이다. 형규 형제와 성민 형제는 이제 샘물교회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순교자가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아들이 되었다.

두 번째로 석방된 21명의 형제자매들은 단지 풀려난 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강하게 속박된 사랑의 포로들로 생환하였다. 이들은 육신을 입고 계속 살아 샘물교회와 세계교회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분투할 몫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24-25절). 이들은 충격을 벗어나 더욱 굳세고 담대한 증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슬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이슬람 사랑 이슬람 이해의 선구자가 되어 한국교회와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프가니스탄과 이슬람 형제자매들이 당한 곤경을 하나님께 호소하여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십자군 전쟁의 참화가 한창인 12세기에 이슬람의 술탄 왕에게 찾아가 평화의 도구라는 시를 바쳤다는 프란체스코처럼 이슬람 형제자매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랑과 평화를 몸으로 보여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븐 바투타가 이슬람 문명권을 25년간 섭렵하여 이슬람 문명권의 우애와 사랑, 헌신과 평화를 체득하여 장대한 여행기를 남긴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정수일역)을 한 번씩 정독하여 이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교가 이들을 통해 구축되기를 소원한다. 그렇다면 이번 41일간의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였다고 고백하는 날이 오리라.

몸으로부터 석방된 형규 성민 형제님, 잠깐 동안 굳바이!! 몸의 석방을 맛보고 귀환여정에 오르는 형제자매님들 어서 오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슬에 매인 거룩한 인질로 붙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쇠사슬에 결박된 거룩한 인질이라네!! 찬송가 28장을 부릅시다!!



## 샘물교회 해외봉사단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에 관한 질문들

조성돈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1. 들어가며

1907년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수많은 행사로 이루어진 한 해의 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로 회개에 바탕된 부흥을 맞이하길 원하시는 뜻을 보여주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회 안에서 우리의 부흥만을 외쳤고 감정적 격동으로 성령을 외쳤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통해 우리로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 같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이 한국사회와 국제사회에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정립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 2. 분기점

이제 이 사건은 전 국민적 관심이 되었다. 모두들 기독교에 대해서는 한 마디씩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번 사건은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탈레반 태도의 소극적 변화로 인해서 잠시 소강상태에 있지만 사건의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면 국민적 관심은 또 어떠한 형태가 되었던 불 일듯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연합뉴스에서는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집단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분노로 표출되어 탈레반보다는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변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 논지가 분명하고 근거가 있는 기사로 보이기에 우리가 했던 막연한 상상이 상당히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본다. (참고자료 1)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간 개신교가 이기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류애에 근거한 봉사하는 단체이고 소극적 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박애정신에 근거한 봉사를 수행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개신교가 이미지의 전환을 꾀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더군다나 그간 보여준 유가족과 피랍자 가족들의 성숙된 태도는 국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전해 주었고 일반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모범적 태도를 보여 주었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 3. 교회적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 언어가 필요한 때이다.

개신교가 그간 한국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종교’ 였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내부적 결속력에 너무 치중하여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그들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신앙은 좋지만 생활세계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딴 그들의 집단이었던 우리의 모습은 ‘이기적’ 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감성중심의 개신교 특유의 신앙양태는 비합리적 생활태도를 만들었고 그것은 사람들로 이해하지 못할 그들만의 삶의 모습이였다. 이에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고립된 집단주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적 언어가 아니라 일반적 언어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일이다. 그것은 일반의 중요한 가치인 인권, 인류애, 박애주의, 인도주의, 세계화와 같은 언어로 이 일을 설명하는 일이며 설득력 있는 합리적 언어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반적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는 일은 목회자들에게 설교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독교언론이나 일반 언론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매 주일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많은 성도들과 언론을 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변증의 언어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또 다시 그들이 만나야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에 전파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도들은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과 논쟁과 토론을 벌여야할 것이며 지금도 그러한 일은 계속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입에 필요한 말들을 담아주기 위함이다.

#### 4. 출발점

kch8475 2007-08-06 10:37:16

피랍된 동족의 고통은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회개의 말 한마디 없는 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관만 중요하고 타국의 종교와 관습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한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에 달린 댓글이다. 감정적 댓글이라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만한 부분들을 잘 보여준 글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개신교가 아직 반성의 기색이 없다는 것이고 다음은 개신교가 항상 그렇게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종교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개신교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고 무엇보다 첫 번째 지적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 5. 예상해 보는 질문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 1) 왜 해외였는가?

- 정당성에 대한 설명 필요 - 국가적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민간외교적 의미가 있는지
- 하필 그 위험지역에 갈 필요가 있었는가? - 희생인가 아니면 종교적 오기인가?

한말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일들은 교육과 의료였다. 의료봉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동시에 교육을 통하여 기독교는 국민들의 의식을 일깨워 유교주의에 찌든 국민들을 역사의 주체로 세운 것이다. 한글을 배웠고 애국의 정신을 배웠으며 개화의 정신을 배운 것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가 한 일들이나 해방 이후와 육이오의 어려움 속에서 구호적 일들을 감당해 준 것은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 직접 어려운 시절 미국 선교단체들을 통해 들어온 구호물자의 덕을 본 분들이 있으실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볼 때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 더군다나 위험했던 그 때에 그들

이 도움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간 우리는 받는 데만 익숙했다. 우리라는 간혀진 사고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데 어려움을 갖도록 했다. 특유의 민족주의나 가족주의는 이기적 집단주의를 만들었고 그것은 넓어진 세계화의 시대에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으로 볼 때 세계 11위에 이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가 꿈처럼 생각하던 2만불 시대가 바로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부(富)해진 환경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 대한 책임에 눈을 떠야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커진 덩치만큼 이 세계에서 감당해야할 일들 역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우리 안의 불우이웃돕기 수준이나 좀 더 나아가서는 북한동포를 돕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제 눈을 떠 세계를 향한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가져야할 것이다.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이웃만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과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일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그 어느 단체들보다도 일찍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의 여러 어려운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프론티어들은 각 곳에서 그 지역에 맞는 봉사의 일들을 개발하고 고아원과 병원, 그리고 학교 등을 설립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조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서 식수를 공급하기도 하고 때론 직접적인 구호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민간외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서 정부가 이루지 못한 부분까지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봉사로 문을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나 기업이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좋아지고 한국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현지 인력들을 만들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외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위험한 지역에 이들이 갔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다.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은 현실적으로 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 박애정신은 우리의 편의에 의한 도움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따른 도움이어야 한다. 우리들의 형편이 좋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러한 분쟁지역은 위험은 하지만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봉사단원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현실적인 여건들로 음식이나 잠자리, 또 도울 수 있는 여건들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할 것에 대한 감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봉사단원들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어쩌면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한 나라를 선택하여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샘물교회의 도움으로 현지에 세워진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도움을 주고 힘이 되기 위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간 사람들은 대학생보다는 직장인들이나 가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 년에 한 번 있는 휴가는 일 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야하는 귀한 시간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일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남을 돕기 위해 그 먼 곳으로 날아갔다. 이들은 즐겁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일부분을 희생하고 그곳의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 간 것이다. 이 희생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 2) 이들을 위한 국가적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하는가?

- 국가적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개인이나 교회가 감당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
- 생명에 대한 댓가는 어디까지 정당인가

종교적 이기주의로 인해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간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들이 있다. 그것은 또 개신교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나타나게 될 국가적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는 이들이 아프가니스탄을 간 것이 자기들의 종교적 선교를 위해서 간 것이고 정부에서 금하는 지역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생겨난 비용은 그들이 져야한다고 논리를 펴고 있다. 실례로 일본의 경우 이라크에서 피랍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에 대해 극우 일본인들이 석방비용을 개인적으로 내라고 폭력적으로 강요했던 사례가 있었다. (참고자료 1)

그러나 이들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개인적 이유라기보다는 인류애와 박애정신에 근거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구촌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간 것이다. 우리가 알듯이 아프가니스탄은 오랜 전쟁으로 처참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세계 사회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삶을 헌신한 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그들을 위해 존재해야할 대한민국은 이들을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이들을 구해야할 의무가 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특별히 한 나라의 국민을 소중히 여겨야하는 정부의 가치기준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미국이 자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벌이는 여러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때로는 몇 십 년 전에 죽은 유해를 찾기 위해 국가적인 비용을 치르며 노력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얼마 전에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하면서 6·25 전쟁 중에 전사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정말 감동을 주고 있다. 그들이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무력이 세고 경제력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한 가치들을 지키는데 있다고 본다.

이번 사건으로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풀어 가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 자식들이 안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듯이 밖에서 소중히 여김을 받아야할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은 개인이나 단체의 일로서가 아니라 국가적 사업으로 받아야 할 것이며 이는 인권과 민주를 소중히 여기는 이 정부의 뚜렷한 의지로 보여지리라 믿는다. 또한 그 대가 역시 얼마짜리 생명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여 대처해야할 바라고 본다.

※ 얼마 전 세 명의 네티즌이 악의적인 의도로 아랍방송인 알 자지라 홈페이지에 피랍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실었다고 한다. 더군다나 이들은 탈레반에게도 이메일을 보내어 피랍자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경찰이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였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에 인권과 생명존중의 사상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 3) 기독교는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가?

- 사회적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 기독교인은 바람직한 민주시민인가

그간 한국교회는 이 사회에서 계도화되어져 있었다. 우리들의 축제에만 집중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더군다나 우리 교인들 역시 교회적 가르침이 부족하여서 이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 드러낼 줄은 알았지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교인다운 삶의 태도나 모양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번 피랍된 사람들을 우리 국민이라는 의식보다는 극성스러운 예수쟁이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 사회를 이끌었던 많은 리더들은 기독교적 배경 가운데 교육받고 양육된 사람들이었다. 기독교의 진취적 소망의식과 실제적인 교육전통이 이러한 국가적 리더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또 교회라고 하면 자기 교회당이나 지으려는 사람들로 매도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개신교가 가장 많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주요종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비교하면 개신교·천주교·불교 등 3개 종교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중에서 개신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60~8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약 5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1999년 말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자는 35,138명이고 사회복지 현장종사자는 1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에서 개신교인 사회복지사는 44.3%로 전체인구에서 개신교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 이상이 된다. 이러한 수치들은 개신교가 알려진 바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교인들 역시 사회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번 해외봉사단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구호활동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생각을 전환하고 교육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분명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회는 사회의 이러한 지적들에 근거하여 반성의 기회를 삼아야할 것으로 본다. 그것은 천국시민만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인들을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격적 아집이나 이기적 태도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 교회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교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올바른 인격자로 종교적 가르침에 근거한 풍성한 인격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교회가 먼저 인식을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회는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할 필요가 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모든 교회들은 이 사회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므로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교인들도 바른 신앙인으로 또 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럴 때 교회는 이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한다.

#### 4) 이번 사건은 사회에서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 봉사인가 선교인가
- 공공성인가 개인의 문제인가

다행이 이번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정부와 언론에서는 봉사로 인식해주고 있다. 이것이 그나마 이 사건이 사회에서 우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직접적인 선교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도움과 지도를 받은 이 팀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장기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제를 당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팀은 순수한 봉사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적 문제라기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공동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간 사람들이다.

#### 5)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나 유족들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는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가?

- 시신기증
- 인간적 호소
- 신의 긍정인가 부정인가

현재 이 사건이 사회에서 인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일단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다는 것과 함께 유가족과 피랍자 가족들의 성숙한 대처이다. 고 배형규 목사의 유가족은 시신의 접수를 거부하며 남은 피랍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장례를 미루고 있겠다고 했다. 고 배형규 목사가 죽어서까지 팀의 리더로서 이루어야 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그리고 후에 모든 피랍자들이 돌아온 다음 장례를 치르고 그 시신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서울대병원에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그들의 가족애를 뛰어넘는 태도는 분명 이 사회에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고 심성민 형제의 가족들도 눈물로 가득한 장례식을 치른 후 아들의 유지와 고 배형규 목사의 뒤를 따라 아들의 시신을 서울대병원에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희생적 태도들은 고인들의 뜻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남은 가족들의 신앙적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여 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피랍자 가족들도 극한 상황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에 그들의 뜻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이 좋은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러한 유가족들의 태도는 현재 언론들에 의해서 호의적으로 그려지고 지고 있다. (참조 유가족 동영상)

이후 이 사건의 추이에 따라 나타나게 될 가족들의 태도 역시 주목되고 있다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6) 기독교는 회개하고 있는가?

- 서로의 비난인가 진정한 회개인가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현재 기독교의 어긋난 선교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응은 혹 일반 언론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적 뒷받침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 이 때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비난보다는 진정한 내부적 회개라고 본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떠한 비난에도 낮은 자세로 임해야할 때다. 서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회개의 자세로 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도 여러 모양으로 사죄도 있었고 공개적 회개도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사회에 제대로 비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시적으로 교회가 낮은 자세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감리교의 삼남연회에서 고 배형규 목사의 뜻을 기려 영남, 호남, 제주지역의 580개 교회를 대상으로 5만명 사후 시신 및 장기 기증 서약 캠페인을 벌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7) 공격적 선교와의 구별은 필요한가?

작년 한 기독교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2000 여명의 한국인 신자들을 모아 평화행진을 한다고 추진한 적이 있다. 사회적으로도 비난이 일었고 정부에서도 말렸으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는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를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행사는 결국 현지 선교사역에도 심대한 피해를 입혔고 한국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도 그 일의 후유증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한 아프가니스탄 현지인 사역자는 이렇게 전한다. “작년에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대형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때, 나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사역해온 것을 1주일 만에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2)

분명 이러한 비합리적인 선교 태도는 반성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그러한 구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은 분명 그러한 독선적 선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에도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해서는 한번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8) 교회는 결국 국가나 사회와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하는가?

이번 일을 통해서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교회는 그간 정부와 정치를 구별하지 못하며 세상과 구별되듯 정부로부터 자유 하고자 했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점점 정부의 비중이 커지는 복지사회에서 교회가 고립되는 상황을 빚고 말았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교회가 정부와 협조되는 가운데서 할 일들을 찾고 동역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복지관 사업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정부와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이 사회 안에서, 그리고 정부와 좋은 파트너십 가운데서 교회의 자리를 찾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랍사건의 국제정치

백종국 교수 (경상대학교)



## 국제 테러리즘에 대하여

최근에 이르러 인류는 일찍이 접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현상을 광범위하게 겪고 있다. 그중에서 국제 테러리즘 현상은 과거에도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더욱 더 의미심장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동서 국가 간의 냉전이 종식되었을 때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기대하였다. 심지어 “(이데올로기적) 역사의 종언”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십여 년을 지나면서 인류는 더욱 더 심각하고 직접적인 공포를 맛보고 있다. 특히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는 이제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안전한 곳에 살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과거에는 주로 강대국들 혹은 강대국의 국민들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왔으나, 지금은 거의 지구상 모든 국가와 국민들이 무차별적으로 테러의 대상이라고 보여진다. 지난 2007년 7월 19일 23명의 한국인이 납치당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인들이 납치당하기 전, 2003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당한 사람은 총 28명으로 여기에는 터키, 인디아, 에이레, 코소보, 필리핀 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에서 16명은 풀려났으나 12명은 살해당한 바 있다.

우리가 보통 “테러”라고 줄여서 말하는 “테러리즘(terrorism)”은 어떤 개인 혹은 집단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행사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영어로 테러(terror)란 우리말로 공포(恐怖)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테러리즘을 쉽게 말하자면 막연한 공포를 조성하여 이 공포를 조성한 사람 혹은 집단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공포를 조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인류 역사를 보면 거의 모든 세기에 암살, 처형, 폭파, 납치, 고문, 강간, 폭행, 등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폭력을 다 테러리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을 때에 테러라고 부른다.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특징은 주로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테러리즘은 비합법적/비정통적/비도덕적이라는 특징을 아울러 지니게 된다. 제네바 의정서와 같은 전쟁에 관한 제반 국제협정들은 전쟁 중이라도 민간인들은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는 전범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다. 탈레반 군은 한국인의 납치가 전쟁행위의 일부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는 실로 국제법이 금하는 비열한 테러 행위임이 틀림없다.

테러리즘의 다른 특징은 주로 정치적/심리적 효과를 노린다는 점이다. 사실 테러를 시도하는 집단들 대부분은 정통적인 군사적 방법으로는 자신들의 의사를 달성할 수 없는 약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절망과 분노를 테러행위로 해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체제가 체제 내의 민간인들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불안을 조성하여 상대 체제의 불안정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혹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제적 차원에서 분쟁 당사자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일지라도 약자의 무기로 약자를 노린다는 도덕적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일 탈레반 군이 정규전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할 수 있었다면 민간 외국인 납치와 같은 테러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들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 셈이고 특히 이번 한국

인의 피랍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했다. 예컨대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짓쳐두고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므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지칭하던 자신들의 의사를 상당히 관철한 셈이 되었다.

많은 테러리즘 전문가들은 2001년의 사건 이후로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이 등장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테러리즘이 대체적으로 민족주의적/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세속적 테러리즘”이었다면, 새로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문화적이고 범지구적인 “종교적 테러리즘”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과거의 테러리스트들이 조직의 공고화와 동원의 편의성을 위해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신념을 동원하는 일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종교적 문화적 신념을 목표로 활동하는 테러 조직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기독교 계통이 6개, 이슬람교 계통이 54개, 시크교 계통이 10개, 기타 종교단체 테러조직이 2개로 총 72개의 종교적 테러조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개 종교적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세속적 테러리즘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들은 또한 인터넷과 위성용 휴대전화, 고성능 컴퓨터, 선불전화 카드, 전자결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테러 행위를 수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9.11 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들은 선불전화 카드로 안전하게 의견을 조율하였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군은 위성용 휴대전화로 피랍 행위를 효과적으로 분산 운영하고 있다. 알 카에다 조직은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는 암시장에서 운반수단이 따로 필요 없는 고성능 대공 장비를 구입하여 민간 항공기들을 격추하고 있다. 즉 선전과 조정과 기밀유지와 기동성과 치명성의 보장이 이미 국제화의 물결을 따라 테러 행위에도 적용되고 있다.

탈레반의 성격은 비록 이슬람 원리주의를 신봉하지만 세속적 테러리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정권을 운영한 적이 있고 또한 현재에도 정권의 탈환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또 주변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이슬람 테러 조직들과는 달리 “세속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세속적 압력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이 정권탈환에 절망적이 된다면 그 때에는 이슬람 원리주의의 경직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 아프가니스탄 테러리즘의 이해

아프가니스탄 혹은 아프간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기원 전 3천 년 전 현재의 칸다하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강대한 국력을 자랑할 때도 있었지만 동서 교역로의 핵심적 전략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에 수많은 외적의 침략에 시달린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원 전 5백 년 경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가, 그 뒤를 이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침공하였으며, 기원 후 13세기에 침입하였던 몽고의 칭기스칸은 아프가니스탄의 강경한 저항에 분노한 나머지 수로를 파괴하고 수목을 베어버려 비옥했던 토지를 사막으로 만들었다. 19세기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20세기에는 소련과 미국이 각각 번갈아 진입하였다. 특히 1979년 크리스마스에는 소련이 침공하였고, 2001년 10월에는 미국이 동맹군을 결성하여 침공하였다.

“학생” 혹은 “구도자(求道者)”라는 뜻인 탈레반이라는 정파는 그 지도자인 오마르를 중심으로 1994년 10월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에서 결성한 수니파 무장 이슬람 정치조직이다. 살인, 약탈, 방화, 강간을 일삼는 군벌들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아프가니스탄을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이슬람 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기치 아래 아프가니스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 각지의 젊은이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내전에 넉넉머리를 내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로 인해 1994년 이미 아프가니스탄 국토의 80% 정도를 장악했고 이듬해 수도 카불을 점령, 14년 간 계속된 제2차 아프가니스탄 내전을 종식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군사적 성공 배후에는 외세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가장 강력한 지원은 중앙아시아로의 교역로와 서부 국경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파키스탄으로부터 왔고, 또한 중앙아시아의 석유를 아라비아 해로 연결하는 송유관을 건설하려는 미국도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카불을 점령한 탈레반은 이슬람 공화국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 내 반군 조직을 무장해제시킨 뒤 약탈과 강도,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힘을 쏟는 한편, 일상 상업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전통적인 아프가니스탄 가문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반군 조직의 무장해제가 난항을 겪자 각 지역 지휘관들과 타협하였을 뿐 아니라, 근본주의적 이슬람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과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게 되었다.

탈레반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외세로부터 왔다.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의 무역빌딩에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그 배후로 알려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알 카에다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탈레반 정부가 이들의 체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를 공유하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 탈레반 정부는 끝까지 보호를 선언하였고, 이 해 10월 7일부터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동맹군의 합동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3백 4십만 명 이상의 난민과 통계를 잡기 힘든 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2007년 7월 현재 동맹군도 587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다. 한국은 시설공사 중심인 150여 명의 다산 부대와 의료 봉사 중심인 60여 명의 동의 부대를 동맹군의 일원으로 비교적 안전한 북부의 바그람 기지에 파견하고 있으나 현재 한 명의 전사자를 내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78년 제2차 내전 발발로부터 시작하여 약 30여 년 동안 한 해도 전쟁의 포화가 그칠 날이 없었던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테러리즘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이다. 특히 내전에 개입하여 자국의 이해나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려는 외세의 침략이 연이어 발생하였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외세혐오증(Xenophobia)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07년에 이르러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은 탈레반 군의 반격이 부쩍 심해지고 있는데 7월 현재까지 벌써 108회의 공격 행위가 기록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쌍방 간의 전쟁행위가 테러와 구분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탈레반은 동맹군의 무차별 전쟁행위로 2007년만 해도 2천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민간인들이 살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탈레반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국제적 민간인 구호활동조차도 살인과 약탈과 납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23명의 한국인 피랍 사건이 그 전형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상호간의 테러행위가 선후와 피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얼크러져 있다는 점이 아프간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 몇 가지 향후 쟁점에 관하여

우선 초미의 관심사는 탈레반 군의 한국인 피랍 사건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첫 번째 기준은 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군사적 행동보다 인질들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사실 표면적으로는 가장 강경하게 행동하는 미국도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협상 수단을 다 해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다. 인질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특공대가 투입되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로 영화에서나 하는 일이다.

두 번째 기준은 가능한 한 테러의 주체를 국제법적 테두리로 끌어들이는 게 협상에 유리하다는 점이다. 1949년 이후로 발전되어온 제네바 협약의 테두리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인질들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 제3조는 전쟁 행위 중에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먼저 탈레반을 전쟁 당사자로 인정하는 조치, 예컨대, 휴전협상 등이 이러한 전략이다. 탈레반의 테러가 정권의 탈환을 목표로 삼는 “세속적 테러리즘”이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만 하다.

세 번째 기준은 최대한 다양한 수단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는 관계 당사자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므로 부정적으로 볼 때 그만큼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 긍정적으로 볼 때 어느 한 쪽에서만 풀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경제 원조를 약속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레반이 요구하는 포로들을 사면해주고, 탈레반은 한국인 인질들을 석방하는 방안은 한국과 아프가니스탄과 탈레반과 미국의 입장에서 각자의 명분을 해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이번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먼저 선교의 자유와 자국민 보호 원칙 간의 충돌 문제이다.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이들이 해외 선교 활동 중 살해당하거나 납치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 테러를 당했을 경우에 자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이 결과는 선교사 살해의 책임을 빙자한 식민지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선교의 자유 혹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자국민 보호가 정치적 목적과 잘못 결합되면 과거 18세기 유럽 기독교 국가들이 범했던 “제국주의적 선교”라는 함정에 빠진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었을 때에 군사적 방안에 대한 여론이 강력히 일어났던 바로 그 현상이다.

미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자국민 보호의 딜레마를 가장 자주 많이 느끼는 나라이다. 여행지역의 위험 정도에 따라 통제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여행경고(travel warning)”라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다. 그 대신 여행경고 대상 지역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방문하였을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경고되고 있다. 특히, 테러리즘의 피해로 인한 보상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 경고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인질사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 책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국가의 기본 임무가 자국민의 보호라는 점에서 자국민의 피랍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원을 투입하는 일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부담을 결국 국민 전체가 져야하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기관이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사실상 효율적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2004년에 이라크에서 발생했던 일본인 피랍사건이 하나의 본보기로 회자되고 있다. 일본인 자유기고가 2명과 배낭여행객 1명이 사로잡혀 1명은 살해당하고 2명은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종결 후에 일본 정부는 인질로 풀려난 2명에 대하여 교섭과정에서 지출된 돈 237만 엔(약 2천만 원)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만일 한국 교회가 세계 어느 지역이든지, 그곳이 설혹 분쟁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선교하고 싶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한다. 왜냐하면 꼭 분쟁지역이 아닐지라도 지금의 세계는 언제 어디에서 테러행위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제법상으로 인정되고 국민의 대다수도 공감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21인이 되어버린  
아프가니스탄의 형제, 자매와 관련하여

이범성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1. 정확한 정보

23인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공식 입장을 밝히는 단일 채널(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위원회와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채널은 피랍된 23인이 자원봉사에 나서게 된 취지와 그들에 대해 소개할만한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을 파송한 샘물교회와 한민족복지재단의 대사회 활동을 소개하여 23인과 그 관련기관들에 대한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오보나 추측들을 일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을 것이다. 피랍된 23인(현재 21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이 같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수시로 접하게 되는 외부로부터의 질문과 도전에 확신을 가지고 응답할 수 있도록 23인과 그 관련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랍된 형제, 자매 23인에 대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분쟁지역 재건을 위해 샘물교회가 파송한 기독교 자원봉사단 23명’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이 명칭은 이들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으로서 명백히 밝히면서도, 동시에 그 여행목적이 분쟁지역에서 행해진 인류애와 재건을 위한 봉사라는 사실을 확실히 전달해 준다.

## 2. 부정적 여론에 대해

대부분의 서구세계 언론은 피랍된 23인을 ‘사회 재건을 위한 한국인 기독교 봉사단’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억울하게 종교적 구실을 붙인 정치적 목적에 희생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도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국의 일부 여론은 23인을 비난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난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서 이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가 금지된 지역에 갔다는 것과 가능한 위협에 대한 정부 측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비난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일 역시 23인을 위해 한국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정부 측에서 경고했으나 출국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단체의 역할이 존중되며 권장되는 시대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시민단체의 한 중요한 형태인 교회나 기독교복지재단 등이 분쟁지역에서 NGO성격의 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비난 받을 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필요한 법이고, 정부 측은 발생 가능한 위협을 경고하는 것 또한 당연하며,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착수하여 혹 위협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와 국민들은 그들의 도덕적 가치관을 높게 평가하며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구촌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올바른 태도 일 것이다.

과거에 한국 역시 분쟁지역이 되어 위험한 시대를 살아왔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해외 봉사자들, 특히 기독교 선교사들의 매우 값어치 있지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도움을 받아온 것이 한국의 그, 현대사이다. 23인의 위협을 ‘자업자득’이라는 한마디 말로 치부하려는 일부 여론의 냉소적 태도는 사해동포정신을 누구보다 잘 체득한 한국민족에게 있어서 낯선 것이 아닐 수 없으며, 분쟁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한 봉사자들의 숭고한 정신까지도 폄하하는 일련의 집단 이기주의적 태도는 우리시대의 상실된 인간성을 반영하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3. 종교를 정치에 이용

23인은 기독교인이거나 선교사였다는 이유로 붙잡힌 것이 아니다. 탈레반은 그들이 억류하게 된 23명의 한국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는 채 납치했다고 한다.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까닭이 없었다. 물론 인질로 잡은 이후에 이들이 한국인이며 기독교인이며 봉사를 목적으로 아프간에 입국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23인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억류되게 된 것이 아니라 인질극을 위한 대외명분이 필요했고 이 목적을 위해 종교의 이름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문제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비단 탈레반의 경우만이 아니다. 기독교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정부도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을 대적하기 위해 그들을 비기독교 세력으로 범주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슬람권 사람들을 총괄하여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는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것은 중동의 이슬람 지도자 회의가 탈레반의 인질극을 ‘비 이슬람적’이라고 대외에 공포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탈레반의 정치적 의도를 그들의 종교로부터 엄격하게 구분하였다. 종교적 극단주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가 모든 종교인들에게 필요하다.

종교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분석과 판단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그 동안 기독교회는 타종교 연구를 대결 구조 속에서만 이해해왔지 공존과 협력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여겨진다. 그 결과 이번 피랍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교회가 이슬람에 대한 권위 있는 전문가 한 사람 내세우지 못하고 종교를 구실로 삼은 정치 놀음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였던 것이다.

### 4. 한국교회의 반성

23인을 아프간에 보내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한민족복지재단 회장과 샘물교회 담임목사와 예장통합 총회장 등이 사과를 했다. 그런데 만일 이들 23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면 이 사과는 불필요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피해자 가족과 한가지로 이들 대표들은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적절한 대 국민적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 사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사과한 자나 사과를 받는 자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혹시 이 사과가 앞으로 타 종교권에서는 기독교선교를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전달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기독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들이 어느 시대에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포교를 허락한 곳에서만 전도를 하였는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은 민주주의의 신념이다. 모든 국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이와 믿는 이가 생길 수 있겠는가!

사과는 23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에 대한 사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3인에 대한 한국 일부 여론의 비난은, 분석해 보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불건전한 선교를 실행해 왔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에 비친 한국교회의 선교는 많은 경우에 불충분한 준비와 세력 확장을 추구하는 이기적 동기와 교파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요구하는 개종이라는 좁은 틀에서 행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그다지 헌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개인 자신의 삶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경우를

보았다든지, 또 선교지에서 돌아 온지 여러 해가 지난 어떤 사람이 선교사라는 직분을 마치 교회의 안수직분처럼 권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을 경험한 것이다. 또한 선교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외나들이를 한다든지, 선교사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해외거주 등의 개인 유익을 꾀한 경우가 있고,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에 나가 방문지 현지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보이기도 했다. 교회는 비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은 흘러 넘길 수 있다고 해도 상식적인 사람들의 이러한 비난은 귀를 기울여 듣고 반성해야 한다.

## 5. 사회성 결여의 문제

이러한 모든 비난의 이유들은 한국 기독교가 사회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선교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 기독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그동안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동떨어진 상반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사회에 노출해 왔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이다. 지난 수 십 년간 한국교회는 사회에 교회와 교파의 분열과 경쟁을 보여주었다. 선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쟁적 이미지로 비쳐졌다. 교회의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성은 사회에 분쟁과 불안을 조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근간에도 한국교회는 사학비리 문제로, 목회자 세습 문제로 그리고 목회자 비과세 문제로 한국사회로부터 비사회적 집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라리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난 중에 많은 부분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없는 교회라면 더 이상 사회로부터 그동안 인정 받아오던 존재근거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선교개념은 세계교회적 틀 안에서 이미 40년대 말에 ‘책임적 사회’ 건설의 문제로 그리고 50년대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회복의 문제로 해석되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로 사람을 모아들이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온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선교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형성된 것이 60년대에 세계교회가 경험한 선교개념의 발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요 3:16) 세상을 섬기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도구에 불과하지 결코 교회 자체가 선교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반성이다. 이러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이해를 ‘하나님의 선교’ 라고 부른다.

불행히도 한국교회는 서구교회의 반성에 대해 배우려 하지 않고 있다. 서구교회는 그들이 지난 세기에 선교지에서 행한 실수들을 제국주의적 선교, 물량주의적 선교, 금전위주의 선교, 시혜-온정주의적 선교, 위압적인 선교, 문화우월주의적 선교 등으로 규정하고 반성하였지만 신흥 선교국으로 부상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과거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였다.

## 6. 봉사나 선교냐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볼 때, 23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추구했던 봉사는 선교임이 분명하다. “선교가 아니라 봉사하러 갔다”는 주장은 구차한 변명이기 이전에 선교에 대한 몰이해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봉사는 곧 선교이기 때문이다. 선교와 봉사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선교를 개종이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이해하는

사고로부터 발생된다. 개종은 무엇보다 종교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연상시켜주는 개념으로서 쉽게 사회 구성원을 편 가르는 일에 사용되어 왔다. 개종보다는 전도라는 말이 사회적 갈등을 고려한다는 뜻에서 차라리 불편하지 않은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도는 특정 단체에 대한 소속감에 얽매임 없이, 단지 도를 전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교는 개종과는 차원이 다르며 전도보다 폭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선교는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나라를 세상에서 실천하는 총체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실천을 위해서는 개종에 관심하기보다는 전도와 봉사에 관심하며 또한 정의, 평화 그리고 일치가 가시적으로 사회에서 실천되는 일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교에 동참하는 이유가 신앙적으로 분명히 설명될 때 이 봉사는 선교가 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벧전 3:15)하는 것이 기독교 봉사자의 자세이다. 개종이나 전도를 원치 않는 사회에서는 봉사만으로도 선교가 되며, 원칙적으로 개종이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도 선교이다. 봉사자가 기독교인이면 그의 순수한 봉사는 그 자체로 이미 선교인 것이다.


## 7. 결론

우리는 앞에서 피랍된 23인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동기와 실행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일부 부정적 여론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또한 23인이 붙잡힌 이유는 종교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현재 겪는 어려움은 기독교인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23인에 관계된 기관의 대표들이 행한 일련의 대국민 사과는 그 이유가 명확해져야 한다. 무엇을 사과했는지가 분명해야 한다. 사과보다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여겨진다. 사과할 내용은 23인을 보낸 사실이 아니라 정확히 구분해 볼 때, 한국의 다수 교단과 교회가 보여준 일방적이고 공격적이며 업적위주로 실행한 잘못된 선교에 대한 것이어야 옳으며, 또한 기독교회가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주장한 자신의 말들을 실천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비난의 모든 이유들은 한 마디로 기독교의 사회성 결여라고 요약될 수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선교적 반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서구 교회의 실수를 그대로 답습했다. 그리고 선교의 광범위한 영역을 개종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해 왔다.


이러한 편협한 이해는 그대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전달되었고 선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팽배하게 만들고 말았다. 한국교회에 선교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피랍된 23인은 선교했으며 그 선교의 내용은 봉사였다. 이 선교는 편협한 이해에 함몰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으며 끝까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프가니스탄의 21인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는다.





##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봉사단과 하나님의 역사

이성구 교수 (고려신학대학원)





## 승자가 있을 수 없는 사건

지난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가던 샘물교회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단기 봉사팀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는 사건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 전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우선 23명이나 되는 대규모 인원이 가장 잔인한 무리로 알려진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것이 충격이요, 그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는 샘물교회 소속 청년들이라는 사실이 또한 큰 충격이었다.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우리는 연일 들려오는 소식에 초조해 했고 마침내 배형규 목사가 살해되었다는 최악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살해행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며칠 뒤에는 가족이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심성민 형제가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 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레반과 직접 협상에 들어가고 있지만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될듯 말듯 하던 1차 석방조치가 이루어졌다. 김정자 김지나 두 자매가 풀려나는 기쁨은 무척 큰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19명의 피랍자들 때문에 풀려난 사람들도, 바라보는 사람들도 마음 놓고 축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 중이던 사람들이 전부 철수하는 사태로 이어진다. 결국 아무 것도 의지할 것 없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만 더 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 탈레반도 국제적 비난 앞에 치진 모습을 보인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지구촌 각 곳에 아픔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패자가 되는 어리석은 사태를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이 없다. 지식 정보의 사회라 부르는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다.

## 아픔을 더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따로 있다. 피랍자들은 어려운 처지에서 스스로 경비를 각출하고 심지어 직장도 그만두면서까지 그저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하여 먼 이국땅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내전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붙잡고 살해하고 언제 죽일지 모르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초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오히려 잡힌 자들, 보낸 교회와 단체,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를 싸잡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를 느끼게 한다. 어쩌다가 한국사회,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사람들은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곡해하려 들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의 경고를 듣지 않았다’ 느니 ‘돌아오도록 정부가 전세비행기를 보냈는데도 거부했다’, ‘카불에서 여성들이 민소매 옷을 입고 다녀 현지인들의 분노를 샀다’는 식의 얼토당토 않는 말을 흘려 사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다. 비자를 발급받은 봉사단원들이 정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도 없고, 샘물교회 봉사단이 피랍되기 전 금년에만 이미 200팀이 넘는 단체들이 아프간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전세비행기는 지난 해의 이야기이고, 의상문제는 그들이 수개월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 중의 하나였다. 샘물교회 봉사단을 대놓고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샘물교회의 그동안의 행적과 봉사단원들의 면면이 알려지면서 그랬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비난의 방향은 아프가니스탄 봉사단에서 한국교회 전반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선교가 공격적’이라는 것을 문제 삼았다. 교회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분명해 보였다. 인터넷에서는 목사들과 신자들이 심심찮게 교회를 향한 공격에 가

담하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한국교회를 반성한다는 입장이었으나, 평소에 가진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영웅 심리를 채우기 위한 단기 선교활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단기선교에 참가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다녀온 사람들은 영웅시되었다’는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마침내 한국교회의 배타주의, 대형교회의 폐습, 담임목사 세습, 성직자의 과세문제까지 비난의 폭은 계속 넓어져갔다.

이러한 강도 높은 비난행위는 인질에 대한 대가 문제가 거론되자, 아직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가 경비를 지급하느냐?’, ‘교회당을 팔아서 지급하라’, ‘그냥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인륜마저 저버린 표현들이 마구 유포되었다.

##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사회의 극단적인 비난을 대하는 한국교회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이니 ‘한국반종교클럽’ 이니 하는 단체들이 존재해왔다. (<http://www.antichris.or.kr> : <http://cafe.naver.com/jinguja.cafe>, 인간을 위한 기독교 비판 : <http://turnoffthecross.wo.to>)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다. 자성의 소리가 쏟아진다. 깊은 사색이나 공감대를 거친 대답이 아니라 공격을 받는 대로 임기응변식 대답을 늘어놓느라 바쁘다. ‘위험한 곳에 굳이 선교하러 가야 하느냐?’는 초보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공격적 선교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영웅주의적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들을 곤란하게 만들 뿐이므로 당장 그만두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다. 심지어 선교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결국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21세기에 선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선교의 도전지는 이슬람 문화권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이슬람 세계는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자살폭탄테러도 마다않는 극단주의자들이 득실거리고 있음을 매일 목도하고 있다. 위험한 곳을 모두 피하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는 없다. 솔직히 말해 선교에서 소위 ‘공격적으로 보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복음전도를 통한 교회의 설립’을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 수 있는가? 봉사와 섬김과 복음전도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가? 국내문제로 돌아와 목사가 세금을 내면 한국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말인가?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봉사단 사태를 접한 우리는 우리의 예상이나 기대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샘물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부가 나서서 대답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다.

## 복음의 진정한 목표 정립 과제

이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림의 책임을 맡기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돌려보아야 한다. 정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물어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려하고 있는가?”

선뜻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모든 민족의 복음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도 가장 자신 있게 말하는 목표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목표일 수는 없다. 기독교왕국 건설 자체가 과연 우리의 목표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될 때에 일어나야 하는 독특한 현상으로 복음화의 의미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런 측면에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명제를 던진 적이 없다. 각 교파, 교단, 교회들이 목표를 제시할 때 대부분 교파와 교단, 개교회의 양적 성장이 1순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선교, 봉사, 섬김, 건강한 교회와 가정 등을 목적으로 제시한다. 행복한 개인과 교회를 세워 영향력을 넓혀가는 확장의 개념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선한 영향력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일 수는 없다.

## 평화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들려주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마3:2; 4:17) 그런데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였다. 그의 오심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는 땅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다. “평안(평화)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인류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세상이다. 우스운 말이지만 인류는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불사한다. 핵무기며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하기 시작하면 지구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으므로 그런 나라나 통치자는 인류의 대적이 되고 마침내 그러한 정권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전쟁을 벌인다. 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나서는 아이러니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그 평화를 이루려하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미 오래 전 이사야 선지자는 ‘종의 노래’를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하는 원리를 통하여 인류는 함께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얻었다. 평화는 결코 전쟁이나 테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오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강력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잘 익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십자가의 원리를 거부하고 여전히 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려 한다.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봉사단은 세상의 논리에 도전하였다.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았다. 형편이 넉넉한 단원들이 아니었다. 푼푼히 자신이 필요한 재정을 모았고, 어떤 이는 직장에 사표를 내고 위험한 길을 나서기도 하였다.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의 용서의 원리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 전쟁의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향했다. 그런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하더라도 봉사단

원들이 여전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지금, 마구잡이로 돌팔매를 휘두르는 것은 보편적인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 피 묻은 가슴으로

한국교회를 대신하여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있는 샘물교회와 피 묻은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봉사단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인 평화를 제대로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음의 '정복'을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섬김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는 복음의 '역설적 능력'을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한다.





## 한국교회와 선교에 주어진 새로운 도전

한철호 선교사 (선교한국 상임위원장)



## 들어가는 말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은 어쩌면 이미 우려되었던 일이다. 지난 해 논란이 되었던 대규모 평화행진 무산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교회의 선교 활동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과 물리적으로 많은 한국 단기 선교팀들의 존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해 주었다. 안타까운 것은 건강한 선교활동을 하던 교회 팀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한 불신자들의 교회에 대한 비판 감수, 위험지역에 세밀한 준비와 위기상황에 대한 대비 없이 가는 것에 대한 반성, 일부 그릇된 동기와 무분별한 선교팀 파견에 대한 반성 등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며 따라서 선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위상과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도 해야 할 것이다.

##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

이번 사건으로 국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독선적이고 반사회적인 태도가 이제 한국교회 전도에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선교하는 가운데 오는 희생과 고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교회의 희생을 세상은 독단과 배타적 태도의 결과로 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교회가 교회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고 겸손히 사회와의 대화 통로를 확보해 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한국사회 안에서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실 이번 사건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선교활동 가운데 생긴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는 한국사회에서의 한국교회의 위상과 인식에 더 큰 위기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물론 인터넷의 속성상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한 진정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과장된 부분도 많다. 또 이유 없이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일은 이미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일어나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당하는 비난의 원인이 그리스도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1세기 초대교회가 당시 사회에서 소수였고 나그네와 같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특성(distinctive) 때문이었다. 즉 나그네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살았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가난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경제 방식을 갖고 살았다. 즉 주는 자가 받는 자 보다 복이 있다는 경제 방식 때문에 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온전한 거처도 없지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더 친밀하게 나누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세상사람들보다 더 착실히 세금을 내고 있었다. 이 나그네 집단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달려 왔다. 그러나 그 결과 교회가 그 사회 안에서 주류 집단이 되면서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 왕국(Christendom)으로 변하면서 교회는 더 이상 소수의 고난 받는 집단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가 가진 독특성 때문이 아니라 유익(incentive)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교회는 커다란 이익집단이 되었고 교회가 전도의 대상인 세상을 향해 겸손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고자세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 비록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이와 같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의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많은 봉사 와 섬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교회가 사회에 보여준 이미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익 집단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기독교 초창기의 독특 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보내진 거룩한 나그네 공 동체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회개와 교회의 원 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선교를 위한 새로운 도전

이번 사태가 한국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25년간의 급속한 선교확장은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동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가 단기팀 사역이다. 오늘날 단기팀 사역은 지역 교회가 비교적 손쉽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는 그렇게 손쉽게 일방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 의 이면에는 선교단체들의 책임도 크다. 준비되지 못한 단기팀 파송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또한 개 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선교는 매우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이며 장기적인 사역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선교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새로운 실천 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교의 개념에 대한 논의 뿐 만 아니라 선교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로 선교하는 동기가 바뀌어야 한다.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대한 형벌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교의 동기가 단순히 지옥 형벌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만 이해될 때 선교하는 일들이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이 거나 배타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 서 선교의 목적이 한 개인을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출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음 전파의 결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다는 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선교의 동기 변 화는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복음의 유일성을 들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둘째로 선교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요한 선교 방식이 1-2주간의 단기선교이다. 그러 나 실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진행되는 1-2주간 정도의 단기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실제적인 선교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선교를 위한 현장 체험 혹은 선교지 방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단기선교팀은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혹은 전문적인 선교단체들 에 의해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선교사 훈련 과정의 일부로 단기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 우 선교 여행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교를 직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선교에 대 한 이해가 확장되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 단기팀을 통해 현장 선교사들 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현장을 방문하고 선교를 경험하는 일은 필요한 일 이다. 그러나 단기팀이 선교현장을 경험하고 선교를 배운다는 관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실 제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의욕이 넘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언어적, 문화적, 환경적 차이로 인해서 오랜 시간과 전략 그리고 적응이 필요하다. 단기팀들이 이런 선교적 요소를 무시하고 사역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 선교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일반적으로 동의되어 가고 있는 개념은 1-2주간의 선교지 방문은 “단기선교” 혹은 “단기선교사”라고 하지 말고 “단기봉사” 혹은 “단기봉사팀”이라는 명칭을 줌으로서 그 사역의 정체성과 한계를 인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기선교”라고 할 경우 자신들이 사역의 주체로서 선교지에서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부여되지만 “단기봉사”라고 할 경우 주도권을 현지 선교사나 교회가 가지고 있고 “단기팀”은 그 일을 돕는 조력자 혹은 관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단기팀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사역을 하기 보다는 현지가 원하는 사역에 동참하여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대신 “단기선교는 최소한 1-2년 이상 선교지에 가서 선교 직접 사역에 참여하고 준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나 이들이 하는 사역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미 ‘선교한국’ 등 일부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단기봉사팀과 단기선교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 개념을 확장 시키는 과정 중에 있었다.

셋째, 선교동원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교단기팀(단기봉사팀) 활동은 최근 한국교회의 주요한 선교동원 방식이 되고 있다. 선교를 전혀 모르던 이들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서 선교에 접하게 되고 도전을 받고 국내에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참여하거나 관련 모임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이 도전을 줄 수 있지만 선교에 대한 바른 성경적 원리와 문화적 접근에 대한 선(先) 이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잘못된 이해를 가져다주게 된다. 올바른 선교동원 패턴은 선교동원은 국내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도 선교에 대한 이해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선교한국대회’, 장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시니어 선교한국대회’ 등을 비롯해서 각종 선교대회와 선교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선교 동원과정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과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훈련을 받은 후 선교지 방문에 참여해야 한다. 무조건 선교지 방문부터 하는 것은 사역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국내에서의 동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방문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는 한번도 전도해 보지 않은 이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국내에서 한 해 동안 한명도 전도하지 않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맞지 않는 일이다. 이러한 선교 전(前)단계가 무시된 형태의 단기팀 사역이 격려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한 사람이 선교지 방문을 통해 도전을 받고 와서 전도에도 열심을 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형태를 일반화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 교회들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선교동원 프로그램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선교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단기 봉사팀을 구성하고 사역에 참여할 때,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준비된 선교자원이 배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해 가면서 여행성 선교지 방문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성도들이 자신의 돈으로 휴가 등 기왕에 해외여행을 하는데 선교지를 중심으로 방문하면 더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교회의 선교재정이 투입되는 선교사역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차원의 여행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교지 방문은 너무 멀지 않은 지역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전에 어려움이 없는 지역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뿌리에는 한국교회 안에 선교동원에 대한 전략과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없기 때문이다.

선교동원과 훈련에 대한 큰 그림과 훈련 프로그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이미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선교하는데 있어서 지역교회와 선교전문단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최근 교회선교활동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교회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물론 교회가 선교의 모판이며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것이지만 실제 선교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선교전문단체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지금 현재 교회가 처해 있는 동일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cross cultural)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므로 전문적인 도움과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물론 선교단체들이 가진 문제점도 있다.

한국교회의 오늘과 같은 선교의 열정과 참여를 다 전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개 교회들이 아무런 전략적 준비 없이 타문화권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오늘 한국선교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역함으로서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교회의 선교가 좀 더 전략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선교전문단체들 또한 정화가 일어나서 효과적으로 바르게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 선교에 대한 태도가 변해야 한다. 성경이 보여준 선교의 태도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이 오늘날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선교하는데 있어서 포기와 희생은 이미 정해진 일이다. 또한 이러한 선교를 위한 포기와 희생은 이미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선교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는 것이다. 선교는 가서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번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고난과 순교에 대한 각성일지도 모른다. 순교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커졌다고 자만해지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위치에 와 있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 전체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이다.

이미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두 분의 순교자를 보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들 모두가 안전하게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길 소망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리는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복음을 위한 고난과 순교에 대한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 전체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의 태도와 선교지를 향한 한국교회의 태도가 섬김과 순교와 희생에서 멀어지고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며 메시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맺으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사회 안에서의 한국교회의 위치와 해외선교 전략에 대한 깊은 반성과 신학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찰은 한국교회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지난 수 십 년 사이에 한국교회 선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도 여러 명의 선교사들이 순교하셨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일을 한국정부와 샘플교회 그리고 당사자 가족들이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

나눔께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가에 대해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올해는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교회 전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그 소망과 기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



선교의 공공성에 대한 시론  
마음을 얻는 선교 : 섬김과 나눔으로 세계를 품어야

양세진 사무총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6:8)

## 0. 선교와 봉사의 상호의존성

2007년 8월 28일,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의료봉사를 떠난 샘물봉사단이 2007년 7월 19일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지 41일 만에 모든 피랍자들을 석방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공식 발표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한국 교회의 선교와 봉사에 대한 그리고 다원화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교회의 존재방식에 대한 많은 도전과 성찰을 안겨 주었다.

한국교회의 선교와 봉사 사역 전반에 대한 진지한 숙고와 고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본 고에서는 선교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샘물교회 의료봉사단이 탈레반에 피랍된 이후 교회는 언론에 발표하기를 ‘아프가니스탄에 간 의료봉사단은 선교가 아니라 봉사를 목적으로 갔다’고 하였다. 아마도 샘물교회 교인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러한 수사학적 표현에 대해 의문을 심지어는 불만을 가졌을 것이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왜 선교가 아니라 봉사라고 굳이 강조하였을까, 분명 단기 선교사역으로 간 것이 분명한데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추후 이러한 교회의 언어적 표현이 탈레반에 피랍되어 있는 봉사단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선교’와 ‘봉사’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였다.

우리는 흔히 닭과 알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곤 한다. 닭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닭이 먼저 있어야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닭의 우선성을 강조하며, 알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의 우선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닭과 알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 우선하는가가 아니라 닭과 알은 다른 한 쪽을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임을 깨닫는 것이다. 어떻게 닭이 알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알은 닭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선교와 봉사의 관계를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하느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선교와 봉사의 관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선하느냐의 물음이 아니라 이 양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통전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복음주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복잡하고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선교와 봉사를 말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우선성을 고집하는 것이 별 유익이 없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선교와 봉사는 상호의존적인 맥락 속에서만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 1. 마음을 얻는 선교, 나눔과 섬김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다 준 것은 동일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를 하러 갔는데 누구는 포로

로 피랍되고, 누구는 협상의 중재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가이다.

똑 같은 섬김과 나눔, 봉사를 수행했음에도 왜 적신월사는 탈레반의 협상 파트너로 존중을 받고 한국의 봉사단은 피랍되고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과연 다원화되고, 역동적이고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 복음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물음은 ‘복음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은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존재방식을 물음으로서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복음은 분명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봉사 사역과 일상 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 보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이 날마다 관계 맺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밖에는 느낄 수 없다.

선교와 봉사의 진정성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밝히 드러나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상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던져야 할 보다 근본적인 물음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심지어는 테러집단이라 불리는 탈레반의 마음까지도 얻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듯이, 적신월사는 이슬람권의 적십자사이다. 우리 정부와 탈레반과 인질 석방 합의에는 적신월사가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 우리 정부와 탈레반의 대면접촉 장소도 가즈니 주의 적신월사 건물에서 이뤄졌다. 적십자사가 상징으로 붉은 십자기를 사용하지만, 적신월사는 붉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십자가가 이슬람권에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붉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쓰는 이슬람의 적십자사를 적신월사<sup>1)</sup>로 부르고 있다.

적신월사의 기본적인 활동 방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간호 봉사를 위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초승달을 상징으로 바꾼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었다. 탈레반이 적신월사의 역사적 뿌리가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기독교임을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탈레반의 마음을 얻은 적신월사의 선교와 봉사, 섬김과 나눔은 한국교회에 회피할 수 없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얻는 선교와 봉사, 섬김과 나눔으로 세계를 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과 헌신 그리고 보다 정교하고 디테일한 선교와 봉사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사역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물론 상황과 맥락에 따라 선교와 봉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강조점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 선교를 강조하고, 혹은 언제 봉사를 강조할 것인가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다원화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현대 사회 속에서 선교와 봉사는 철저하게 섬김과 나눔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금은 녹아야 그 맛을 낼 수 있다. 미

---

1) 적신월사의 유래는 지난 1877년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간호 부대가 십자가가 십자군을 연상시킨다며 ‘붉은 초승달’을 상징으로 쓰면서 처음 시작됐다. 적신월은 지난 1929년 국제적인 공인을 얻게 되면서 현재 33개 나라가 사용하고 있다. 적신월사는 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각종 구호활동을 펼치며 이슬람권에서 신망이 두텁다.

가서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을 얻지 못하는 선교와 봉사는 더 이상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데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섬김과 나눔으로 품지 못하는 세계는 더 이상 우리의 선교지도 사역지도 될 수 없을 것이다.

2007년 여름 한국 교회에 쏟아진 비난은 아프간에 간 샘물봉사단 때문이 아니다. 고통이란 귀 먹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강조한 C.S.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를 압도했던 이 여름의 지극한 고통은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 하나님의 메가폰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를 들은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2. 복음에 합당한 선교와 봉사

현재 한국에서 해외 선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해외 선교에 헌신하고 사역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각오할 뿐만 아니라 테러범들에게 납치되었을 때 일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긴 서약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선교단체들이나 교회가 스스로가 알아서 책임을 지고 선교와 봉사 사역을 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샘물봉사단 피랍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듯이 지구적으로 연결된 세계화의 맥락 속에서 개별 단체, 개별 교회, 개별 국가만의 행동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100년 전 해외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이 현지인에 의해 납치되거나 죽음을 당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100년이 지난 2007년 현재 지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장기도 아닌 단기적으로 봉사를 떠난 23명의 피랍사건으로 기독교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힘들어 하게 된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의 선교와 봉사는 좀더 공공성의 관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적으로 우리는 성도이면서 시민이며, 시민이면서 성도라는 고백을 한다. 이러한 이중적 책무와 삶의 조건은 국가라는 체제 속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현실이다.

오늘날 시민(citizen)이라고 소개되는 개념은 '폴리스(polis)' 라는 고대 그리스도의 도시공동체인 아테네에서의 시민적 삶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즉 도시공동체의 문제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good community)' 로 변화시켜가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을 시민이라고 칭한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폴리스를 이루며 사는 동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공동체적 속성과 성격을 강조하였다. 지금이야 흔히 서울이나, 대전, 광주, 부산에 살면 즉 도시에 살면 그냥 시민이라고 부르지만, 적어도 고대 아테네의 도시공동체에서 시민이라는 칭호는 대단히 명예롭고 위대한 가치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즉 시민은 공공의 문제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한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으로 사적인(Private) 삶이란 공적(Public)인 삶이 결여된 것을 의미하는 제한된 가치를 갖고 있었다. 로마의 시인 테레니우스 역시 '모든 사람은 나에게 낯설지 않다' 라는 말을 통해 인간의 공동체적 삶, 시민적 삶의 존재론적 성격을 보여주었다. 한편 라틴어 civitas로 연결된 시민이라는 개념은 '예의바른' 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시민답게 행동한다는 것은 법을 지키고 질서는 따르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예의 바른' 방식으로 따르는 것까지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예의바른' 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의미를 우선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를 가진' 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한국을 다녀간 미국 풀러 신학교 총장인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가 중요한 덕목이었음을 생각하면, 점점 더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환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사적인 문제나 영역에 가두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까지 이끌어 내어 적용하는 신앙의 공공성, 선교의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진리와 원칙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는 태도를 균형 있게 내면화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설령 그 사람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다원적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부정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다원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적 양심을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말 진지하게 묻고 성찰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식으로 선교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선교에 대한 공공성의 관점은 포스트 모던한 현대 사회속에서 실행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준비가 과연 얼마나 되어 있는가?

### 3. 선교의 공공성 : 교회-정부-기업-NGO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2006년 7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섬김과 나눔으로 세계를 품기 위해 즉 인류 사회를 돕기 위해 교회가 단독으로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넘어서 정부와 기업 및 다른 NGO와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각 영역이 가진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 그리고 네트워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더 큰 열매가 창출되며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외선교와 봉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이미 사회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정부<sup>3)</sup>, 기업<sup>4)</sup>, NGO<sup>5)</sup>가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기독교 교회의 해외 선교와 봉사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sup>6)</sup>, 교회가 단독으로 하는 경우 그 이상의 가치가 창출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의 공공성을 말할 때 우리는 교회가 기존의 공적 공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업, NGO라는 행위주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세계기구와의 협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0년 개최된 UN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빈곤퇴치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

2) 현재 인도에서 수행되는 선교 사례를 보더라도 선교 자체가 불법인 인도에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나 성경 이야기는 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고, 굶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을 말 없이 도왔더니 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3)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4억4천6백만불 규모로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0.33%의 1/3 수준에 불과하여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對)개도국 원조가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국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정책의 전략적인 운용과 선진화가 시급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기업 및 NGO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4) 전경련이 발간한 <2005기업사회공헌백서>에 의하면 2005년 244개 기업이 사용한 사회공헌비용이 1조4,025억 원에 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공헌을 수행하는 기업의 범위도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1천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5) 한국해외원조 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빈곤퇴치와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 44개 NGO의 사업비는 물품지원액을 포함하여 1천 1백억 원 가량 된다. 이중 기독교적 가치를 배경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의 개발원조 사업비는 약 8백 7십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s)<sup>7)</sup>가 채택되었다. 이후 로마선언(2003), 마라케시각서(2004)에 이어 파리선언(2005)으로 이어지는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파트너십 강화와 공동노력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sup>8)</sup> 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탈레반의 피랍사건과 연결지어 볼 때 한국 교회가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선교와 봉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범세계적인 안보에 직접 참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경제적 목표, 정의 및 인권신장 등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안보 및 안정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빈곤이 국제적인 테러나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밀레니엄 개발 목표 선언은 향후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제적인 안보나 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4. 선교의 통전성 회복

한국에서 볼 때 아프가니스탄과 외국은 해외선교지일지 몰라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의 선교는 국내선교지로 접근되어진다. 즉, 아프가니스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역사 등 아프가니스탄의 국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재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과 전문성이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마음을 얻는 선교와 봉사를 실천한다고 했을 때 그 현장은 국내에서의 선교와 봉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마음을 얻는 선교와 봉사 그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한국 사회를 품는 것으로부터 세계는 품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다. 참된 경건에 관해서 야고보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라고 쓰고 있다. 칼빈이 얘기한대로 여기서 말한 고아와 과부는 ‘부분으로 전체’를 일컫는 수사학적 표현이다. 고통 받는 이들을 모두 일컫는 말인 것이다.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 진정한 예배라는 말이다. 기독교 선교와 봉사가 지향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목표, 가장 현실적인 윤리적 가치가 있다면 우리 시대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일이다. 해외의 분쟁과 빈곤지역 그리고 국내 각지의 사회적 약자들을 타자로 대상화시키지 않고 섬김과 나눔으로 품으며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진정성으로 선교와 봉사가 이루어질 때 이미 벌써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 믿은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혹은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는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김

6)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나 선교한국에서 공식적인 통계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2006년을 기준으로 약 1만 5천 명의 해외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고, 약 3만 명의 단기선교와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간 3천억 원 가량의 선교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7) 유엔과 국제사회가 정한 밀레니엄 개발 목표는 ① 대 빈곤 및 기아 퇴치 ②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③ 성 평등 및 여성능력 고扬 ④ 동 사망률 감소 ⑤ 성 보건 증진 ⑥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각종 질병 퇴치 ⑦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⑧ 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등 8가지이다.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개념을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자금의 흐름(Resource Flows)을 의미하며, 각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① 주요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관한 것 ② 양허적 성격으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함 ③ DAC 수원국 리스트 Part1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Part1 국가를 주요 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여야 함.

과 나눔, 봉사가 진행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선포되고 임재할 것이다.

분명 세계 선교와 봉사의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는 공공성의 시대이다. 교회가 교회 자신의 관점과 패러다임으로 세계를 대상화시키고 타자화해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교로서 진정한 선교와 봉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세계와 사회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밝히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봉사단 피랍 관련 기도제목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제공



## 피랍자와 가족을 위한 기도

01. 고 배형규 목사님과 고 심성민 형제님의 희생이 아프카니스탄과 무슬림 형제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임하게 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게 하소서.
02. 고 배형규 목사님과 고 심성민 형제를 비롯하여 19명의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03. 탈레반에 억류 중인 19명의 형제자매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열악한 환경과 살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소서.
04. 19명의 형제자매들이 풀려나는 그날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큰 환란을 이기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05. 피랍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날마다 잘 이기게 하소서.
06.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라도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 국제사회와 협상담당자를 위한 기도

07. 탈레반이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려놓고 협상 대표자들과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08. 아프카니스탄 정부와 이번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부와 단체들이 한국인 피랍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을 먼저 생각하고 구출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09. 피랍 사태의 해결을 위한 협상단에게 고도의 지혜와 실행 능력을 주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모든 위정자들이 피랍자가 풀려날 때까지 지지하지 않고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10.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번 일에 관심을 갖고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속히 피랍자들이 풀려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 샘물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11.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환란 중에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12. 박은조 목사를 비롯한 당회원과 교역자 등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의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주소서.
13.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피랍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소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소서.
14. 샘물교회 성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감당하며 고통하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분쟁과 빈곤 지역을 향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하게 하소서.

## 한국사회를 위한 기도

15. 기독교인들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시고 바른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16. 피랍사태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풀리게 하시고 분쟁과 빈곤 지역을 섬기기 위해 달려간 그들의 순수한 뜻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17.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고통 받는 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18. 이번 피랍사태로 인해 보여진 생명경시 풍조에 대해 온 국민이 가슴 깊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다 함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19.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특히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피해가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게 하소서.
20.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매체들이 건강한 정신과 윤리가 사회 속에 뿌리 내리도록 먼저 본을 보이며 실천하게 하소서.

## 한국교회와 세계평화 및 섬김을 위한 기도

21.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며 복음전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22. 그동안 한국교회가 추구해온 선교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현지인들의 문화를 겸손히 배우며 그들의 필요를 전문적으로 살펴 참 이웃으로서의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3. 이번 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가슴에 품고 교계지도자들이 먼저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여겨 회개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24. 주님의 몸된 전 세계의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대정부, 대언론 등 이 사태와 연관된 모든 기관 및 단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25. 현지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는 교회와 단체, 성도들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실질적인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하소서.
26. 이번 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거주지를 떠나야만 하는 NGO사역자들과 한국인 교포들을 위로해주시며 향후 사역과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인도해주소서.
27. 이번 일로 인해 현지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품게 하시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나눔과 섬김 즉, 의료, 교육, 구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28. 세계의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거주자들, 그리고 여행자들을 지켜주소서.
29.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해주시고 복음이 지속적이고 담대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30. 세계선교를 향한 열정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내외적으로 선교전략과 비전을 새롭게 함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는 선교한국이 되게 하소서.



## | 피랍사태 관련 자료





언론기관 : 서울=연합뉴스

기사제목 : 피랍사태 ‘속수무책’ …국민들 집단 ‘무력감’

기사입력 : 2007. 08. 06 06:40 입력

기사기자 : 하채림기자

기사확인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18118&section\\_id=102&menu\\_id=102](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718118&section_id=102&menu_id=102)

아프간 피랍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집단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탈레반보다 오히려 오히려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는 등 다른 대상을 겨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6일 전문가들은 아프간 사태가 탈레반에 의해 남성 인질 2명이 피살된 데 이어 일부 여성 인질의 건강 악화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민들의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심성민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진 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는식의 보도가 이어지고, 미국은 원칙론만을 강조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함을 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아프간 관련 각 포털 뉴스게시판에는 “결국 다 죽는 것 아니냐”, “답답하다”는 글이 이어졌다.

직장인 엄모씨(42, 경기도 성남시)는 “사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미국도 원칙에서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인질들이 다 희생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이 같은 집단 무력감은 다른 대상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피랍관련 뉴스 댓글에 탈레반의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보다는 개신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시종일관 주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소 개신교의 행태에 대한 반감이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분풀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정신과 남궁기 교수는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분풀이를 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다종교 사회의 특성상 이슬람 사원이나 외국인 거주지에 대한 폭력이 빚어지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고 남궁교수는 진단했다.

정신과전문의 정혜신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집단적인 무력감에 빠지면서 내부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된다”며 “문제의 근원이 탈레반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치와 무관하게 일반 대중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책임자 또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것. 향후 사태의 전개에 따라 ‘분풀이’는 격렬한 감정폭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본 정부가 이라크행을 강행한 피랍자 3명을 ‘뒷돈’을 주고 석방시킨 후 극우 일본인들이 이들의 집을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이어진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뒷돈이 얼마인지 밝히라, 국가가 언제 너희들을 이라크로 가라고 했느냐, 네가 좋아서 갔는데 어째서 우리가 낸 세금을 써야 하느냐”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일본의 상황이 현재 국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유사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포한별병원 서동우 정신과장은 “지난 번 김선일씨 피살 때와는 달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차분한 편”이라며 “그러나 사태가 어떤 식으로 종결되든 미국이나 개신교, 무슬림 또는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kch8475 2007-08-06 10:37:16*

피랍된 동족의 고통은 누구나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회개의 말 한마디 없는 것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오직 자기들의 종교관만 중요하고 타국의 종교와 관습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언론기관 : 뉴스앤조이(<http://www.newsjoy.co.kr>)

기사제목 : “탈레반의 종교적 신념이 협상 걸림돌”

아프간 무자헤딘 출신 선교사, “한국교회, 지혜로운 선교 방식 배워야”

기사입력 : 2007년 8월 7일. 05:11:07

후세인 안다리아스는 과거 무슬림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무장 게릴라 조직인 무자헤딘의 전사였다. 이번에 납치 사건이 발생한 가즈니 지역 출신이기도 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천 미디어 뉴스> 편집장이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미주뉴스앤조이 박지호

탈레반에게 억류된 한국인들의 무사귀환을 기다리며, 피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들은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다. 이들 중에는 아프간 출신 선교사도 있다. 후세인 안다리아스가 그 중 한명이다. 그는 과거 무슬림이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무장 게릴라 조직인 무자헤딘의 전사였다. 이번에 납치 사건이 발생한 가즈니 지역 출신이기도 하다. 그는 17년 전 기독교로 개종했고, 이후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다. 현재는 아프가니스탄 크리스천 미디어 뉴스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미국 오하이오 주 모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후세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납치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낙심해선 안 되며, 선교 방식에서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지혜는 단순했다. ‘묻고 듣는 것’이다. 즉 선교지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사역해온 동료 사역자들에게 먼저 묻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는 법”이라며 선교지에서 다른 사역자들과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납치 사건 대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해결책이 없다는 말이다. 미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의견에도 회의적이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움직이는 탈레반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인터뷰 내용이다.

Q. 이번 납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물었어야 한다.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이동할 생각인데 괜찮겠냐’고 물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 점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러나 이미 납치가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도록, 결국 풀려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두 명이 죽었다. 그분들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씨앗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한국 크리스천들이 (다른 지역을 疫?像?때) 그 지역에서 좀 더 오랫동안 사역해온 동역자들에게 먼저 묻는 성숙함을 갖도록 기도할 것이다.

Q. 한국 정부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이 없나.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탈레반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들은 누구든 죽일 수 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고, 영광스럽게 여긴다. 참고로 내가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아버지와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칼로 내 살을 도려내고 물통에 집어넣고 전기로 지켰다. 내 친아버지가 그랬다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만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 탈레반이 마음을 바꾸고 겸손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는 무슬림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 나는 그들의 심리를 잘 안다.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 세력도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정부도 할 수 없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었으면 오사마 빈라덴을 6년이 지나도록 잡지 못했겠나.

Q. 탈레반이 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나.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Q. 종교적인 이유라는 말인가.

물론이다. 탈레반은 모두(외국인을 지칭)를 기독교인으로 생각한다. 탈레반에게는 CIA도, FBI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서구 외국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그렇게(납치하고 살해하는 것) 하도록 원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의무로 여기는 것이다. 그것이 큰 문제다.

Q. 탈레반이 수감자와 맞교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을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동료를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레반과의 협상이 어려운 것이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접근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려니 힘든 것이다.

Q. 한국교회가 이번 일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라. 하나님의 지혜가 뭐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 며 (책을 던져 보이면서) 이렇게 던져 주지 않는다. 선교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역해온 동료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 여기 좋은 예가 있다. 한 손으로 박수를 쳐보라. 소리가 나는가. 두 손이 함께 움직여야 박수소리가 난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역해온 동역자들에게 묻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작년에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대형 집회를 연다고 했을 때, 나는 바보 같?짓이라고 말했다. 왜 그런 줄 아는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사역해온 것을 1주일 만에 모두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Q. 이번 사태로 인해 다른 외국 선교사들에게 영향은 없나.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아프간 정부가 지난주 모든 외국 선교사들에게 카불 이외에는 나가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상황이 악화되어 힘들지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안전하게 풀려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한국 정부가 현지 한국인들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모두 철수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장기간 사역해온 사역자는 사역에 큰 지장을 얻게 될 것이다. 또 현지에서 한국인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만약에 모두 철수하게 된다면 잃기만 하고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Q.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납치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풀려나도록 기도하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지혜에 귀를 기울이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동역자들을 함께 보내 주셨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선교의 이기주의가 결국 선교의 이단을 만든다.

다만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선교 현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지혜롭지 못하면 패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선교적 대위임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

출 처 : 빛과소금

제 목 : 아프간 인질 사태는 시대적 표징

글쓴이 : 문창극(moochain@joongang.co.kr)

문창극 님은 중앙일보 부발행인이자 주필이다.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 미주총국장, 관훈클럽 총무를 거쳐, 2005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제15대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아프간 인질 사태가 나라를 흔들었다. 이미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9월호 이 잡지가 나올 무렵에는 19명의 인질이 풀려나 있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인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 또한 없지 않다. 과거 인질 사건을 볼 때 석방까지 수개월씩 걸린 것이 보통이었다. 인질 중에는 병까지 걸린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야겠다. 이번 인질 사건이 워낙 규모가 크고, 또 희생자도 생겨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이런 중에 “왜 하필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사람을 보냈느냐”라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한국교회가 경쟁적으로 해외선교를 하는 데서 비롯된 부작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러한 비판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크리스천이라면 이러한 세상의 비판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선교는 크리스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이다. 물론 단기선교 봉사자들의 안전을 사전에 철저히 체크하는 것이 교회 리더십들이 할 일이다. 그 점에서 사전에 좀 더 세심했다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책임 문제에 매달릴 때가 아니다. 인질들이 우선 풀려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순종의 마음, 섬김으로 떠난 길

나는 이번 일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나라 전체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믿는다. 크리스천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교회 청년 20여 명이 이슬람권에 단기선교와 봉사를 갔다가 인질이 됐다는 단순 사건이 아니다. 이번 일은 한국교회의 해외선교가 세계사나 세계교회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한국의 범세계적 역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번 일을 감히 시대적인 사건이라고 진단하고 싶다. 전쟁으로 황폐화 되어 누구도 가기를 꺼리는 그 땅을 왜 유독 한국 젊은이들이 찾아갔는가. 사실 아랍권은 한국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역이다. 관계성을 따진다면 유럽이 오히려 그들과 가깝다. 한때 그들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 가서 이런 식의 대규모 봉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 보지 못했다. 성직자 아닌 일반 젊은이들이 선교를 하러 갔다는 말은 더욱 들어 보지 못했다. 정말로 우리에게서 이름조차 낯선 아프간이고, 이라크이다. 그 나라에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계속 희생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다. 누가 시키거나 보수를 받고 간 것이 아니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 돈을 내어, 휴가 기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물론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간 것이다. 그 사랑이 봉사로, 치료로, 경제 지원로 나타난 것이다. 각자의 마음에 아프간 사람들이 정말로 불쌍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힘이 생겨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한국에 이러한 선교의 열정이 불게 되었는가. 나는 그들을 그곳으로 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 전쟁으로 헐벗고 굶주린 아프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이 한국 젊은이들을 부르신 것이다.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네,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다. 단지 이슬람 국가뿐이 아니다. 세계 구석구석 헐벗고, 굶주리고, 전쟁이 있는 곳에 이제부터는 한국인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있다고 믿고 싶다.

## 무슬림에 대한 유럽의 고민

유럽은 지금 무슬림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때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랍권 사람의 이민을 허락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테러와 문화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히잡을 쓸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사회가 양분되어 있다. 그들을 유럽 문화에 통합시키는 것이 옳으냐, 그들의 문화를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슬람 문화를 인정해 주려다 보니 유럽의 문화와 상충될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유럽이 점차 자기 것을 잃어간다는 자성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만큼 우월을 따질 수 없다는 상대주의, 류의 탈계몽주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가 유럽의 정신세계를 휩쓸고 있다. 인류가 보편적이라고 믿어 왔던 자유, 인권, 민주, 심지어 관용과 생명 존중이라는 가치들조차 유럽 스스로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럽이 발전시키고 이끌고 온 기독교 문화를 이들은 하찮게 여기기 시작했다. 물론 믿음도 버렸다. 그것은 단지 종교를 버린데 그치지 않고 유럽의 문화, 문명, 의식 까지도 같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영국은 이미 개신교 국가가 아니고, 포르투갈, 스페인도 이미 가톨릭 국가가 아니다. 영국의 교회들은 술집으로, 카페로 변하고 있다. 인구를 보아도 유럽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유럽인들은 출산을 꺼리기 때문에 결국 무슬림에게 그 땅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이기도 하다. 빈 땅을 한번 자세히 보라. 그곳이 어디든 간에 어디선가 이름 모를 풀씨들이 날아와 반드시 빈 땅을 채우고 그 자리에서 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이 스스로 비운 유럽 땅을 50년, 1백년 뒤에는 무슬림들이 채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낮은 데로 걸어가는 의미 있는 행보

이런 유럽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그것이 선교의 이름이든, 봉사의 이름이든 무슬림 세계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적 맥락에서 유럽은 쇠퇴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문명사적으로 본다면 유럽 문명이 발전시킨 보편적 가치를 이제는 한국이 세계로 전파하라는 의미는 아닐까. 단지 무슬림 국가만이 아니다. 우간다, 뉴기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구석구석에 한국의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없다. 한국의 선교사 파견 숫자가 1만 6천 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이다. 후진국을 위해 우리 정부가 쓰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은 2006년 4억 4,600만 달러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다. 국민 1인당 우리는 9달러 쓰는 것에 불과하나 아일랜드는 253달러, 오스트리아는 183달러, 일본은 91달러, 미국은 76달러를 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 대신 교회가, 선교사가, 단기 선교 봉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지배와 착취와 억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베풀고 고쳐주기 위해서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며 미래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1백 년 전 개화기에 외국 선교사에 빚을 졌다. 더럽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조선을 선교사들이 와서 사랑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근대화와 독립은 선교사의 역할을 빼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연세대, 이화여대, 세브란스 병원 등 교육과 의료기관은 물론 3.1 독립운동 등 기독교의 역할은 막대했다. 그 뿐 아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가 미국에 진 빚을 생각해 보라. 밀가루, 옥수수 가루, 분유, 하다못해 크레용 까지 우리는 미국사람들이 보낸 준 구호 물자로 연명하며 일어섰다. 미국 사람들이 먹고 살게 넘쳐나서 도와준 것이 아니다. 그들은 계란 한 개 털 먹고, 우유 한 컵 털 마시고, 학용품을 아껴서 우리에게 보내 준 것이다. 그런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이 된 것이다. 이런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그 때 진 빚을 갚고 있는 것이다.

## 한국에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라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경제나 정치에만 있지 않다. 나라가 번영할 때는 반드시 정신적 힘이 뒷받침이 됐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번영은 그에 앞서 노예해방 등 정신적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영국 상인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정직성을 인정받았다. 그 때 정치 역시 도덕적 열정에 바탕을 두었다. 윌리엄 월버포스 등이 주도가 된 당시 기독교 지식인 공동체인 클레팸 공동체의 역할도 컸다.

20세기 미국의 번영 역시 19세기말 미국의 각성 운동에 힘입었다. 알렌, 언더우드, 세브란스 등 미국 선교사와 그 후원자들이 바로 그때 조선을 찾은 것이다.

나는 우리가 지금 이라크로, 아프간으로, 세계 구석구석에 선교사를 보내는 일도 이러한 정신의 힘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이 정신의 힘이 한국의 경제력과 연계될 때 한국은 세계의 주도적이 나라로 도약하게 된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간 인질 사건은 시대적 사건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식민지를 시대 거쳤다. 제국주의를 했던 유럽이나 일본과는 다르다. 우리는 식민지 국가들의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또 2차 대전 후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최일선 대결장이었다. 그로 인해 동족상잔의 전쟁까지 겪었다. 냉전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 민족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그렇



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압박받는 나라, 전쟁으로 고생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우리는 줄 것이 있다. 단지 경제적으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에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외선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렇기 때문에 값진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세계사에서 주역이 되는 하나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2007년 9월 빛과소금 제공**

언론기관 : 중앙일보 (www.joins.com)

기사제목 : [이훈범시시각각] 나는 사랑의 힘을 믿는다

기사입력 : 2007.07.30 19:05 입력

기사기자 : 이훈범 논설위원

기사확인 :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10186](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810186)

조지 타마린이라는 이스라엘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다. 8~14세 이스라엘 어린이 1000명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예리코 전투 장면을 읽어줬다. “여호수아가 외쳤다. 저 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해 (그리고 약탈해) 주께 바쳐라. (...) 그들은 남녀노소와 소·양·나귀 등 도시의 모든 것을 칼로 없애고 불태웠다.” 이어 문제를 낸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이 옳은가.” 66%에게는 전적으로 옳았고 26%에게 전적으로 나빴다. 타마린은 다른 이스라엘 어린이 집단에 같은 질문을 했다. 이번엔 여호수아를 ‘린 장군’, 이스라엘을 ‘3000년 전 중국 왕조’로 바꿨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린 장군에 찬성한 아이들은 7%에 불과했고 75%는 반대했다.

진화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신저 『만들어진 신』에서 종교가 인류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지 설명하며 이 예를 든다. 대량학살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용납되는 현실 말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또 한번 타마린의 실험 대상이 된 느낌이다. 질문은 이렇다. “23명의 기독교 신자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했다.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 그 물음은 이렇게 바뀐다. “23명의 한국 청년이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 대답은 타마린의 결과만큼이나 극과 극일 터다. 처음 질문엔 비난이, 나중 질문엔 칭찬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종교란 이름만으로 칭찬이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 “23명의 기독교도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다. 그들의 행동은 옳은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다. 기독교도의 봉사란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는 듯 봉사란 단어를 선교로 바꾸려 애쓰는 사람들이 딱해서 하는 얘기다. 인터넷을 뒤져 입맛에 맞는 사진과 동영상을 찾아내 증오를 퍼 나르면서도 주리고 병든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모습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가여워 하는 얘기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라크·레바논 같은 이슬람 지역에 가 본 사람은 안다. 그곳에서의 선교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 말이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그럴지 몰라도 무슬림 앞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형편이 못 된다. 선교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무슬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족과 이웃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이 하는 건 사랑을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땅 끝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이행하려면 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흔히 선교와 봉사라는 단어가 혼용되는 이유다.

나는 무신론자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런 선교라는 이름의 봉사를 지지한다. 설령 그 뒤에 한국 교회들의 세력 확장 경쟁이 숨어 있더라도 그렇다. 종교·종파 갈등으로 싸움이 끊이지 않는 땅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 그들을 돕는 데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선교사들도 따라서 많음을 알고 있어서다.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대부로 통하는 강태운(49) 목사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18년 전 팔레스타인 민병대가 소총을 메고 활보하는 베들레헴에 교회 대신 ‘조이하우스(즐거운 집)’라는 유치원을 열었다. 그가 실천하려는 믿음, ‘공존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다. 5년 전 들었던 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노느라고 정신없는 저 아이들이 몇 년 후엔 아버지·삼촌 대신 소총을 잡습니다. 감정의 끈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아야 해요.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지금은 철 없어 보여도 단기 선교가 또 하나의 강태운을 만드는 씨앗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는 사이 세상은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언론기관 : 프리존 뉴스 (www.freezonenews.com)

기사제목 : 인터넷 떠도는 피랍자 관련 루머 모두 ‘사실무근’

외교부 “비행기 취소는 금시초문… 전세기 보낸 적 없다”

기사입력 : 2007년 7월 23일. 13:52:09

기사기자 : 전경웅 (enoch@freezonenews.com)

기사확인 :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18474>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게 피랍된 23명의 사람들과 관련, 포털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루머들이 퍼지면서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과 피랍자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있다. 하지만 <프리존뉴스>의 확인 결과 이 루머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분당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피랍된 이후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루머는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신나간 기독교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간 것’, ‘탈레반이 인질들의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하고 있다’ 는 것 등이다.

이중 가장 많이 떠도는 루머가 바로 ‘정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광신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부를 무시하고 간 것’ 이라는 부분. 루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지난 3월 분당 샘물교회에서 봉사활동과 선교활동 명목으로 3회의 아프가니스탄행 계획을 세웠는데 외교통상부에서 이를 알아챈 후 샘물교회 측에 ‘준전쟁지역이므로 위험하다’ 며 경고했다. 하지만 피랍된 사람들과 교회 측이 이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행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외교통상부가 피랍자들이 예약한 비행기 표를 강제취소했고 교회 측에서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나서는 한편 다시 비행기 표를 끊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이들에게 경고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때까지 외교통상부에서 샘물교회 측에 20여 차례 경고를 했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피랍자 일행은 결국 서남아시아 3개국을 돌아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 이들의 아프가니스탄 입국을 안 외교통상부는 전용기를 보내 귀국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이들은 또 거부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는 다시 경고했지만 샘물교회와 피랍자들은 오히려 유서까지 미리 남길테니 걱정말라며 외교통상부의 간섭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다 아프가니스탄에 간 일행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됐다. 사건이 벌어지자 피랍자 가족과 교회 측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비난하며 1천2백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루머는 이런 내용을 차례대로 서술하며 피랍된 사람들과 교회, 복지재단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부각시키고 있다. 루머는 또한 이 내용을 서술하면서 '출국 전 아프간 여행 금지 풋말 앞에서 V자를 보이며 당당하게 사진 찍음'이라는 등의 설명을 덧붙여 정부는 '할 만큼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루머가 인터넷을 통해 퍼지자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광신 기독교에 있다'며 피랍자와 분당 샘물교회, 한민족 복지재단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루머는 확인 결과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프리즌뉴스>는 우선 외교통상부 공보팀에 이 루머의 내용을 알려주며 그 진위를 물었다. 이에 공보팀 운송서 서기관은 "그런 내용은 금지초문"이라고 대답했다. 운 서기관은 "지금까지 해외여행과 관련해 출국을 금지하는 어떤 법적 장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아닌 이상 여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묻기 위해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로 다시 연락했다. 재외국민보호과 또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오는 8월 발효되는 새 여권법에서는 위험국가에 입국을 시도할 경우 다양한 제한과 처벌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루머의 내용처럼 20여 차례가 넘는 경고와 만류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1천2백억원 배상 또한 "그런 말은 지금 처음 듣는다"며 의아해 했다.

피랍자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하라고 전용기를 보낸 것도 금지초문이라고 했다. 재외국민보호과는 "작년 카불 시내에서 기독교 신도들 수천명이 모여 행진을 하겠다던 '평화행사'를 막기 위해 티켓을 강제취소하고 전용기를 보낸 적은 있으나 이번 건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2월경 이번 봉사활동의 주체인 한민족 복지재단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루머에 대해 분당 샘물교회의 한 신도는 "너무 왜곡된 게 많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현지에 피랍된 인솔 목사"라고 밝혔다. 그에게 루머와 이에 따른 상황을 설명하자 "하루에 수백통씩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전화가 걸려온다"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한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그는 또한 루머 내용에 대해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만 봐도 그런 말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교회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음해를 하는 건 곤란하다"며 답답해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한 한민족 복지재단 측 또한 이 같은 루머 내용들에 대해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피랍자 가족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1천2백억 소송을 하느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피랍된 사람들의 종교와 개인 미니홈페이지 사진만으로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 또한 이들을 '광신적 한국 기독교인'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분당 샘물교회 교인과 피랍자 가족들, 한민족 복지재단에 대해서도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고 있다. 때문인지 분당 샘물교회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된 상태다.

한편 이번 피랍자들의 봉사활동을 추진한 한민족 복지재단은 한국국제협력단에 정식 등록된 구호단체로 1991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선명회(현 월드비전),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다른 복지단체들과 함께 북한 어린이 돕기, 아프간 어린이 돕기, 이라크 의료지원 및 재건지원, 우즈베키스탄 의료지원, 이란 구호지원금 및 긴급물자지원 사업, 해외동포돕기사업 등을 펼쳐왔다. 분당 샘물교회 한승조 담임목사는 2004년부터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하지만 이곳 또한 이번 피랍 사건 이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한 루머와 추측에 휩쓸려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고 특정 종교 전체를 도매금으로 비난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네티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이다.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또 한 번 세계 네티즌의 비웃음거리로 전락될까 우려된다.

언론기관 : 뉴스메이커 (newsmaker.khan.co.kr)

기사제목 :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 ‘고난의 십자가’

기사입력 : 2007년 8월 16일, 14:24

기사기자 :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기사확인 : <http://newsmaker.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15215&pt=nv>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3&article\\_id=0000011860](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3&article_id=0000011860)

##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지난 8일 경기 분당 샘물교회 2층 본당. 700~800여 명의 교회신자들이 무대에 선 전도사의 찬송가를 듣고 있었다. 피랍 21일째. 원래대로라면 이날은 수요일예배가 있었겠지만, 피랍이 알려진 날부터 시작한 매일 저녁 8시 집회도 21일째를 맞고 있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얼굴에서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교회당엔 누적된 피로와 고통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기도하던 이들은 때때로 손수건이나 화장지를 꺼내 눈물을 닦았고, 장년의 한 남성 신도는 눈물도 메마른 듯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피랍자 가족이 만든 UCC를 영어와 아랍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등의 공지사항이 있는 뒤,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박은조 담임목사가 교단에 올라섰다.

이날 제시한 성경구절은 열왕기 39장. 동료들을 모두 잃은 ‘엘리아’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는 대목이다. 박 목사는 말한다. “이제 3주가 지나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웅적 죽음을 위해 아프간 땅을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를 뒷바라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간 사람들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소서.”

## 교파 내에서 상당한 개혁적 입장

그는 기도에 응답한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말한 대목을 인용하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으니 금식은 하지 말자”고 말했다. “피랍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그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먹을 수 없었고, 피랍가족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걸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금식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먹고 자는 것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는 덧붙인다. 기도시간. 다시금 교회는 눈물바다가 되었다. 피랍자 가족이 호명되고, 신도들은 그들을 껴안고 다시 울면서 찬송을 불렀다. CCM 가수 ‘소울’ 씨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손바닥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밤 10시 30분 무렵, 21일째의 집회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절망의 터널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1층 사무실. 기자는 박은조 목사와 샘물교회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야기를 듣던 교회 언론담당자는 “무엇을 취재하는지 알겠다. 질문내용을 팩스로 보내라. 논의해보고 취재에 응할지 결정하겠다”며 문을 닫고 들어갔다. 불신. 인터넷에 올라오는 샘물교회에 대한 비난여론도 그렇지만, 언론에 대한 불신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인터넷 검색창에 ‘박은조’와 ‘뉴라이트’라는 검색어를 치면, ‘박은조 목사의 진실’과 같은 제목을 단 블로거들의 글이 쏟아져 나온다. 네티즌들은 “박은조 목사는 뉴라이트 계열의 기독교단체의 공동대표이고, 이 단체는 한나라당을 지지하는데다, 단체의 다른 공동대표는 불법로비자금을 받아 사법처리를 받았다”며 공분하고 있다. 피랍사건 후 쏟아지는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에 샘물교회는 홈페이지를 닫고 피랍 인질들의 무사귀환을 위한 기도요청 제목만 게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은조 목사는 뉴라이트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독교개혁매체인 ‘복음과 상황’, ‘뉴스앤조이’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매체들은 기독교 뉴라이트 진영에 날을 세워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해하기 힘든 행보지만, 박 목사는 “지금은 국민들에게 엎드려 용서를 빌 때”라며 입을 다물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2004년 11월 서경석·김진홍 목사가 만든 단체가 ‘기독교사회책임’이다. 그때 표방한 내용이 교계의 뉴라이트 운동을 하겠다는 것이고, 공동대표로 박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 뉴라이트 전국연합과는 관계 없는 단체이고, 지금은 공동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의 말이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에는 박 목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댓글을 다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우리와 관계 없다는 것이고, 그 분 개인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사회책임의 반응도 비슷하다. 이 단체의 실무자는 말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명단에 있었는데, 그 뒤로는 빠진 것으로 안다. 우리 단체의 공동대표도 아니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신 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입장을 표명해야 할 이유가 없다.”

## 도대체 무슨 까닭이 있었던 걸까. 박 목사는 왜 뉴라이트 단체에 관여했다가 그만둔 걸까.

“사실 (뉴라이트의 주도적 인물인) 서경석 목사와 김진홍 목사, 그리고 박 목사는 20여 년 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 서 목사가 경실련 사무총장을 맡고 있을 때는 진보적 입장이었지만, 도움은 복음주의계열 쪽에서 받았다. 박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 뒤 서 목사는 입장이 바뀌었다. 뉴라이트나 기독교사회책임이 출범할 때 참여 요청을 받았지만 봉사나 헌신을 넘어선 정치적 특정 이데올로기 참여운동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박 목사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교형 평화누리 목사의 말이다.

뉴라이트와 박 목사의 관계에 대해 교계 내에선 거의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기독교사회책임출범 당시, 사회적으로 신망받는 목사들의 이름을 포함시켜 팩스로 돌리는 사회단체에서 익숙한 ‘관행’ 때문에 비롯한 ‘오해’라는 것이다. 백찬홍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조금 더 자세한 ‘내막’을 증언한다. “당시 교파를 초월해서 만들어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 옥한흠 목사나 박 목사 등이 이 단



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단체 차원에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결정해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인데, 그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박 목사를 뉴라이트와 연결지어 비판하는 것 같다.”

박 목사의 독특한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박 목사는 예장고신, 즉 ‘예수교장로회 고려신학’이라는 개신교 내 한 갈래의 입장을 갖고 있다. 개신교 내에서 ‘고신’은 보수주의로 분류되고 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여기서 보수주의란 통상적·정치적 의미의 보수, 진보 구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박 목사는 헌납할 재산도 없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제시대 대부분의 기독교도들은 그것이 국가의식이라고 해서 굴복했다. 하지만 이 ‘고신’ 분파는 끝까지 우상숭배라며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해방 후 그것을 하나의 금지로 삼았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여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종교적 의미의 보수주의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목사에 대한 비난여론에서 단군상이나 장승을 자른 기독교 행태 등이 거론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 목사의 경우 ‘고신’ 내로 한정해본다면 상당한 개혁적 입장이라고 교계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박 목사가 적을 두고 있던 영동교회 자체가 보수주의적 입장이면서도 사회현실에 대해 외면하지 않는 독특한 전통을 갖고 있었다는 것.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을 벌여온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이나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박 목사가 영동교회 담임목사를 하다가 분당샘물교회로 ‘분립개척’한 사례도 교계 내에서는 지금도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박 목사는 평소 “건강한 교회로 남기 위해서 1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보다 1000명 모이는 교회 10개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또 목회자들이 받는 월급을 담임목사인 자신을 포함하여 100만 원으로 통일하는 조치를 단행한다. 100만 원에 가족 1인당 19만 원을 추가하는 형태의 월급체제다. “사실 가족들을 다 분가시킨 담임목사보다 부목사나 일반 목회자가 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이유다. 보통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피랍사건을 계기로 대형교회에서 빈번한 비리문제와 박 목사를 연결시켜 거론되고 있지만, 박 목사의 이런 ‘행적’은 그런 비판의 과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샘물교회에서 만난 한 신자는 “인터넷에서 박 목사의 재산을 헌납하라는 댓글을 읽었는데, 박 목사는 헌납할 재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기독교’의 시청 앞 3·1구국기도회 같은 행사에도 그는 비판적이었다. 이 행사를 반대하는 141인 목회자 성명에 그는 참여하고 있다. “물론 정서적 입장에서 한기총 쪽에 가까웠을 수는 있지만 시청 앞 성조기 행사 등이 교회 목사나 교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고, 그럴 때 일수록 더 자중해야 할 때라고 말해왔다.” 이승규 뉴스앤조이 기자의 말이다. 그는 이번 피랍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박 목사와 샘물교회와 관련한 교계 뉴스를 취재해왔다.

그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박 목사가) 교회에 대한 네티즌의 비난여론에 대해 공감해왔고, 그래서 복음과상황, 뉴스앤조이의 이사장을 맡았다. 때로는 ‘뉴스앤조이 등의 교회비판’이 과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보였지만, 편집방향에 개입한 적은 없었다.”

##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 회복할 때”

비슷한 이유에서 박 목사는 한민족복지재단의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씨가 피살된 당시, 그의 죽음을 순교로 포장하며 공격적 선교를 정당화하는 한국기독교 진영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까. 다시 말해 왜 하필 박은조 목사와 샘물교회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걸까.

정운형 교회개혁연대 사무국장은 “샘물교회나 한민족복지재단의 경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잘하는, 봉사정신이 제대로 구현된 유형이 아니었나 싶다”며 “네티즌들은 공격적 선교의 연장선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듯하지만 아프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진정성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봉사나 선교냐’라는 쟁점이 있는데,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봐야 한다. 심지어 어떤 곳은 군대에 가도 ‘파송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군대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군대를 보냈으니 잘 다녀오라는 의미다.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디 가서 티를 내지는 않는다. 선교냐 봉사냐는 것은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불분명하다. 성경을 뿌리거나 전도·안수하는 형태의 선교행위는 적어도 요즘엔 거의 없다.” 뉴스앤조이 이 기자의 말이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백 연구위원은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축제를 진행하려다 물의를 일으킨 ‘인터콥’의 경우가 단적으로 비판을 받을 만한 선교행태라고 말한다. 그의 설명을 계속 들어보자. “인터콥은 기독교인이 적은 국가, 특히 이슬람 지역에 대한 공격적 선봉대 역할을 하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다. 이 단체가 베들레헴에서 평화대행진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곳이 예수탄생지이다 보니 이슬람 쪽도 관광객을 환영하는 입장이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화해를 위한 행사라는 명분이 통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정부가 반대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필완 목사는 복음주의적 입장과는 또 다른 에큐메니컬(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기독교 내 흐름)의 입장이다. 그는 “박 목사의 위치에서 뉴스앤조이와 같은 개혁적인 매체에 설사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대단한 일”이라면서도 “기독교가 정신차리지 않는 한, 이번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랜드 사태, 김홍도 목사의 이명박 지지 등 기독교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 많았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으면 어느 순간 넘칩니다. 그 넘치는 순간 이번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런 비난여론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전부 ‘안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고립되고 있는데, 교회는 그런 외부의 비판에 귀를 닫고 자신을 키우는 데 급급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체된 것이 10년 정도 됐습니다. 위기를 느꼈을 때 자정능력을 발휘에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처럼 자기들끼리 모여 대형 집회하는 식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은조 목사가 공격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의 화살은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번 아프간피랍 사태와 관련,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 목사와 샘물교회에 너무나 가혹한 시련을 안겨줬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한국교회의 거듭남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 누군가의 ‘숨은 뜻’ 일지도 모른다.